

열린의정, 정책의정, 바른의정 실현

- 2025년 -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5. 10.



영등포구의회

목 차

I . 출장개요	1
1. 개 요	1
2. 출장일정	2
3. 출장자 업무분장	4
4. 방문국가 현황	5
II . 총 평	7
III . 방문지 현황	10
1. 요 약	10
2. 세부현황	13
IV . 출장내용(공식방문)	31
1. [뉴욕] UN본부	31
2. [워싱턴D.C.] 국회의사당	42
3. [워싱턴D.C.] 워싱턴D.C.의회	47
4. [뉴욕] 뉴욕공립도서관	54
5. [뉴욕] 한미경찰자문위원회	64
6. [뉴저지] 버겐 패밀리 센터	71

V. 출장내용(현장시찰)	79
1. 교육 및 문화사업 분야	79
2. 정원·(수변)공원 분야	82
3. 보훈 및 기념사업 분야	85
4. 도시재생 분야	90
5. 기타 분야	93
VI. 입법·정책 추진계획	96
1. 의회운영 분야	96
2. 교육 분야	119
3. 자치행정 분야	130
4. 복지 분야	133
VII. 출장경비 집행내역	139
VIII. 붙임	140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40
2. 회의록(출장 전)	148
3. 회의록(출장 후)	173
4. 심사결과	181
5. 항공권 영수증	182



출장개요

1. 개 요

출 장 국	미국(뉴욕, 뉴저지,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목 적	선진 국가의 의회, 운영, 주요 정책 운영 실태 등 우수한 정책과 제도를 학습하고 우리구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기 간	2025. 9. 4.(목) ~ 9. 12.(금) / 6박9일						
보 고 서 작 성 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규선						
인 원	총 22명(의원 16명, 직원 6명)						
소요예산	금112,545,560원						
연번	직위	성명	성별	연번	직위	성명	성별
1	의장	정선희	여	12	의원	박현우	남
2	부의장	유승용	남	13	의원	신흥식	남
3	운영위원장	이규선	남	14	의원	이성수	남
4	행정위원장	양송이	여	15	의원	우경란	여
5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영	여	16	의원	최인순	여
6	의원	최봉희	여	17	직원	수행1	남
7	의원	김지연	여	18	직원	수행2	남
8	의원	남완현	남	19	직원	수행3	여
9	의원	전승관	남	20	직원	수행4	남
10	의원	이순우	여	21	직원	수행5	여
11	의원	임현호	남	22	직원	수행6	남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비고
9. 4. (목)	인천	뉴욕		○ 출발 인천공항(10:00) ▶날짜 변경선 통과◀ 도착 뉴욕JFK공항(11:00)	
	뉴욕	뉴욕	한미경찰자문위원회	○ 한미경찰자문위원회 방문 및 간담회 (16:00)	공식방문
9. 5. (금)	뉴욕	뉴욕	UN본부	○ UN본부 방문 및 관계자 미팅 (10:30)	공식방문
	뉴욕	뉴욕	센트럴파크 메트로폴리탄미술관	○ 도심속 공원 및 선진 미술관 시스템 견학 (13:00)	
9. 6. (토)	뉴욕	워싱턴D.C.		○ 이동(뉴욕→워싱턴D.C.) (09:00~14:00)	
	워싱턴D.C.	워싱턴D.C.	국회의사당	○ 국회의사당 방문 (15:20)	공식방문
9. 7. (일)	워싱턴D.C.	워싱턴D.C.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 선진 박물관 견학으로 향후 관내 박물관 건립시 참고자료 활용 (10:00)	
	워싱턴D.C.	워싱턴D.C.	국립식물원	○ 선진 식물원 견학 및 벤치마킹 (13:30)	
	워싱턴D.C.	워싱턴D.C.	제퍼슨기념관 링컨기념관 한국전참전기념비	○ 기념사업 활용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14:30)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비고
9. 8. (월)	워싱턴D.C.	워싱턴D.C.	워싱턴D.C.의회	○ 워싱턴D.C.의회 방문 및 간담회 (10:00)	공식방문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자유의 종	○ 기념사업 활용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13:00)	
	필라델피아	뉴욕		○ 이동(필라델피아→뉴욕) (15:30~18:00)	
9. 9. (화)	뉴욕	뉴저지	버겐 패밀리센터	○ 선진 복지 시설 방문 및 간담회 (10:00)	공식방문
9. 10. (수)	뉴욕	뉴욕	뉴욕공립도서관	○ 선진 도서관 시스템 견학 및 간담회 (10:15)	공식방문
	뉴욕	뉴욕	911메모리얼파크 하이라인공원 리틀아일랜드	○ 기념사업, 도시재정비 분야 견학 및 벤치마킹 (14:00)	
9. 11. (목)	뉴욕			○ 뉴욕 공항 출발 (00:50)	
9. 12. (금)		인천		○ 인천 공항 도착 (06:10)	

3. 출장자 업무분장

연번	구분	성명	담당기관	업무내용
1	의회운영 분야	정선희	[공식] 워싱턴D.C.의회	인사말 및 협력 의사 전달 공무국외출장 운영 총괄
2		유승용		현재 주요 이슈 조사
3		이규선	[공식] UN본부	지역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국제정책 사례 수집
4		김지연	[공식] 국회의사당	청문회·공청회 운영 방식, 공개회의 문화 조사
5	행정위원회 (교육·문화· 기념사업)	양송이	[공식] 뉴욕공립도서관	프로그램 구성, 시민 접근성 조사 우리구 도서관 접목 방안 연구
6		신홍식		예산, 조직구조, 운영 방법 등 조사
7		박현우	[공식] 버겐 패밀리 센터	프로그램 구성 조사, 지역 맞춤형 교육 문화정책 개발 방향 도출
8		우경란		예산, 조직구조, 운영 방법 등 조사
9		임현호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벤치마킹 예산, 조직구조, 운영 방법 등 조사
10		최봉희	국립식물원, 링컨기념관 제퍼슨기념관 등	문화 도시 정체성 강화 전략 도출 시민 접근성 강화 방안 도출
11	사회건설위원회 (복지·보훈· 도시재생)	차인영	[공식] 한미경찰자문위원회	우리구 기관과 비교 분석
12		남완현		예산, 조직구조, 운영 방법 등 조사
13		이성수	한국전 참전 기념비 911메모리얼파크	타 도시의 유사한 추모 공간 운영 사례 비교 분석
14		이순우		추모 및 시민의식 제고 사례 정리
15		전승관	허드슨 야드 개발지구 하이라인공원 리틀아일랜드	도시개발의 방향성, 구민 참여방안 연구
16		최인순		개발 프로젝트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시설 개발 시 갈등 사례 연구
17	직원	수행1	공무국외출장 업무수행 총괄 보좌	
18		수행2	방문기관 의전 및 일정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19		수행3	운영위원회 소관 정책 및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 자료 조사	
20		수행4	행정위원회 소관 정책 및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 자료 조사	
21		수행5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정책 및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 자료 조사	
22		수행6	방문기관 의전 및 홍보자료 수집, 사진 촬영	

4. 방문국가 현황

□ 국가별

구분	대한민국	미국
국기		
국명	대한민국	United States of America
수도	서울특별시(인구 937만명)	워싱턴D.C.(인구 70만명)
면적	100,410km ² (세계 108위)	9,834,000km ² (세계 3위)
인구	5,130만명(세계 29위)	3억 4,700만명(세계 3위)
인구밀도	513명/km ²	33.8명/km ²
정부형태	단원제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대통령중심제
의회	단원제 (300석, 임기 4년)	양원제 (상원 100석, 6년 / 하원 435석, 2년)
국내총생산	1조 6,732억 달러(세계 13위)	28조 달러(세계 1위)
1인당 GDP	약 34,000달러(세계 30위권)	85,000달러(세계 7위)
실업률	3.8%	4.1%
산업구조	서비스업(63.5%), 광공업(28.1%), 제조업(28.0%), 중화학공업(23.8%), 건설업(5.7%)	서비스업(77.0%), 제조업(10.0%) 광공업(4.5%), 중화학공업(23.8%), 건설업(4.5%)

□ 도시별

구분	영등포구	뉴욕시	워싱턴D.C.
행정단위	자치구	주 내 도시	연방 직할 특별구 (District)
면적	24.6Km ²	778.0Km ²	158.1Km ²
인구	372,863명	8,097,282명	670,050명
지하철	지하철1,5,9호선 버스망	지하철 472역 MTA	메트로(6개 노선) Circulator
랜드마크	63빌딩, 파크원	센트럴파크, 브루클린 브릿지	워싱턴 기념비
주요기능	금융, 정치	금융, 미디어, 관광	정치, 외교
1인당 평균소득	—	\$186,848	\$259,938
GDP	\$384억	\$1조 2,423억	\$1,764억 9,200만
집행기관장	최호권 (국민의힘)	에릭 애덤스 (무소속)	뮌리엘 바우저 (민주당)
대표의원 (국회의원)	채현일(갑) 김민석(을)	연방 하원 13석	엘리노어 홈즈 노턴 (민주당, 18선)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10석 더불어민주당 7석	뉴욕시 민주당 45석 뉴욕시 공화당 6석	민주당 16석 무소속 6석
임기	4년	4년 (재선 가능, 최대 2회 연속 가능)	4년 (2년마다 일부교체)
자치구		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크스, 스태튼 아일랜드	

현재 영등포구는 급속한 도시개발과 다문화 인구 증가, 문화인프라 부족, 의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의회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의정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진사례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지역 현실에 적용하고자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했습니다.

출장단은 미국의 주요 공공기관 및 복지·문화 현장을 방문하여 선진 행정제도, 복지 시스템, 도시재생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정책 개선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의회와 뉴욕 버겐패밀리센터 방문을 통해 지방 자치의 핵심 가치인 ‘시민 중심의 행정’과 ‘복지의 공공성’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도시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복지·문화·치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구체적 사례를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9·11 메모리얼파크, 하이라인공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은 ‘도시 회복력’과 ‘기억의 공동체’라는 공공철학을 보여주며, 영등포구의 도시재생 및 문화정책 수립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장을 통해 청소년 복지, 디지털 교육, 지역 복지서비스 개선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12건의 조례 및 정책 제안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는 공무국외출장의 결과가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일정 조율 과정에서 일부 현장 조사와 인적 교류의 폭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주제별 세부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현실과 상황에 맞게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확인된 한계와 성과를 바탕으로, 사전 연구와 기획 단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방문 목적과 성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출장의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 평가와 환류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이번 출장에서의 성찰이 향후 의정활동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등포구의회는 선진 행정과 복지의 방향성을 학습하고, 구민 중심의 정책 가치를 재확인한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비록 일정상 제약은 있었지만,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성찰과 공공의식의 확장은 향후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제도를 단순히 답습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가치와 철학을 새롭게 빚어내는 공론의 장입니다.

이번 출장의 진정한 성과는 제도의 모방을 넘어, ‘구민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다시금 일깨운 데 있습니다.

영등포구의회는 이번 출장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배움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이 구민의 삶으로 실현되는 “학습하는 의회, 실천하는 지방의회”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III 방문지 현황

1. 요약

□ 공식방문

위원회	분야	방문지(도시)	주요 현황
운영	의회 운영	UN본부 (뉴욕)	○ 운영형태: 국제기구 ○ 소 재 지: 405 E 45th St, New York, NY 10017 ○ 가입국가: 193개국 ○ 상주인력: 약 6,400명 ○ 주요기능: 국제기구 유엔(UN)의 중심 사무소로서 국제 평화와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UN의 운영 및 회의 주관
		국회의사당 (워싱턴D.C.)	○ 구성형태: 양원제(상원 및 하원) - 의회구성: 상원 100명, 하원 435명 ○ 소 재 지: 20004 District of Columbia, Washington ○ 주요기능 및 역할: 미국 연방정부의 입법부 - 연방 법률 제·개정 및 폐지 - 연방정부 예산안 심의 및 승인 - 행정부 견제 및 감시
		워싱턴D.C.의회 (워싱턴D.C.)	○ 구성형태: 단일의회(단원제) - 의회구성: 의원 13명 ○ 소 재 지: 135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004 ○ 주요기능: 워싱턴 D.C. 행정구역 지방 입법기관 - 법률 제·개정 및 폐지 - D.C. 정부의 예산안 심사 및 승인 - 각종 위원회를 통해 행정부 집행기관 감독 및 주민 민원 청취·대응
행정	문 화	뉴욕공립도서관 (뉴욕)	○ 운영형태: 민간 비영리 독립법인 ○ 소재지: 476 Fifth Avenue (5번가) at East 42nd Street, New York, NY 10018 ○ 장서규모: 약 5,600만 점 ○ 교육 및 공공프로그램: 연간 140만 명 이상 참여, 4만 개 이상 프로그램 ○ 접근성: 장애인 맞춤형 기술 완비
	자치행정	한미경찰자문위원회 (뉴욕)	○ 설립연도: 2017년 ○ 소재지: 219-01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 주요역할 및 활동 - 한인 사회와 경찰·소방·보건 등 공공기관 간 협력 - 치안문제 발생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대응
사회	복 지	버겐 패밀리센터 (뉴저지)	○ 설립연도: 1898년 ○ 소재지: 44 Armory Street, Englewood, New Jersey 07631 ○ 주요목적: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현장시찰

위원회	분야	방문지(도시)	주요 현황
행정	교육 문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 소재지: 1000 Fifth Avenue, Manhattan, New York, NY 10028 ○ 관람객 수: 연간 350만 명 이상 ○ 프로그램: 맞춤형 해설 투어, 그룹 초청 강연 등 ○ 소장품: 약 200만점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워싱턴D.C.)	○ 소재지: Constitution Ave & 10th St NW, Washington, D.C. 20560 ○ 관람객 수: 연간 440만명 ○ 프로그램: 어린이 체험실, 실험실형 워크숍 등 ○ 소장품: 약 1억 4,800만점 이상의 표본 보유
	기념사업	독립기념관 (필라델피아)	○ 운영시간: 09:00~17:00 ○ 연혁: 1732년 착공, 1753년 완공 ○ 주요 역사적 사건 - 1775년: 조지 워싱턴 대륙군 최고사령관 임명 - 1776년: 미국독립선언문 채택 - 1787년: 미국 헌법 제정 및 승인
		자유의 종 (필라델피아)	○ 19세기 중반 심한 균열이 생겼지만, 이 균열이 ‘자유의 투쟁’ 상징으로 받아들여짐 ○ 상징성 - 자유와 인권 운동의 상징물 - 전세계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잡음
		제퍼슨기념관 (워싱턴D.C.)	○ 소재지: 900 Ohio Drive, S.W., National Mall, Washington, D.C. 20024 ○ 관람객수: 연간 200만명 이상 ○ 운영주체: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 시민사회의 철학적 기반을 공간으로 구현한 모범사례
		링컨기념관 (워싱턴D.C.)	○ 소재지: 2 Lincoln Memorial Circle, NW, Washington, D.C. 20037 ○ 관람객 수: 연간 800만명 이상 ○ 특징: 1963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I Have a Dream’ 연설을 하며 시민권 운동의 상징적 순간을 열었고, 미국 사회 정의와 인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위원회	분야	방문지(도시)	주요 현황
사회	도시재생	하이라인공원 (뉴욕)	○ 설립연도: 2012년 착공, 2019년 공식 개장 ○ 소재지: 미국 뉴욕 맨해튼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 주요내용 - 맨해튼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에서 허드슨 야드까지 이어지는 고가 산책로(길이 약 2.3km) - 전 세계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 사례로 폐철로를 재활용해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공공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프로젝트 - 뉴욕시와 협력해 2006년 착공→2009~2019년 단계적 개장
		리틀아일랜드 (뉴욕)	○ 설립연도: 2006년 착공, 2009년 개장 ○ 소재지: 미국 뉴욕 맨해튼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 주요내용 - 허드슨 야드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 위에 축조된 인공섬 공원 - 공원 전체가 132개의 튜립 모양의 콘크리트 기둥 위에 떠 있는 형태 - 산책로와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전망대에서 로어 맨해튼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조망 가능
	정원 (수변)공원	국립식물원 (워싱턴D.C.)	○ 소재지: 1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001 ○ 관람객 수: 연간 100만명 ○ 특징: 기후위기 대응형 콘텐츠 운영, 정원 디자인 다양성 ○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식물원
		센트럴파크 (뉴욕)	○ 시공기간: 1857년 착공, 1873년 완공 ○ 면적: 약 3.41km² ○ 소재지: 뉴욕 맨해튼 중심부 위치 ○ 주요내용 - 공원 설계 당시의 역사적 경관과 조경원칙 보존 - 연중 다양한 공연과 전시 개최로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 공원 운영 사례로 평가
	보훈사업	911메모리얼파크 (뉴욕)	○ 설립: 2011.9.11. 개장 ○ 소재지: 미국 뉴욕 맨해튼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 주요내용 - 2001년 9월 11일 테러로 희생된 2,977명의 희생자 및 1993년 세계무역 센터 폭탄 테러 희생자 6명을 기리기 위한 공간 - 과거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부지에 위치하였으며, 10년 간의 공사 후 2011년 개장
		한국전참전기념비 (워싱턴D.C.)	○ 설립: 1995.7.27.(한국전쟁 정전협정 42주년) ○ 소재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몰 ○ 주요내용 - 1950~1953년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과 UN군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 한국전쟁 중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이들의 희생을 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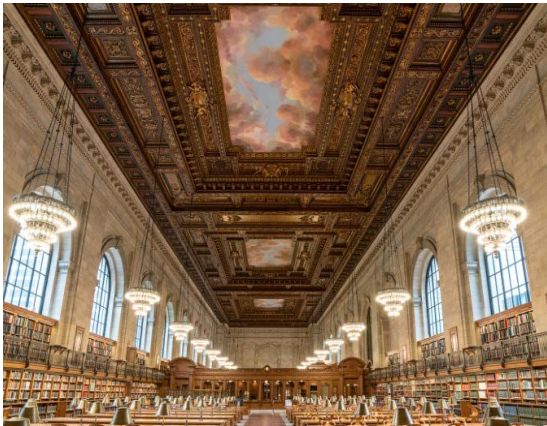
2. 세부 현황

□ 공식방문

연번	1	분야	의회 운영												
방문지	UN본부	도시	뉴욕												
방문 목적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전략 벤치마킹을 통하여 영등포구만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지역 정책 수립 방안 분석 ○ 안전보장이사회 등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위기관리 및 갈등 조정 메커니즘 개발 방향 모색 ○ UN의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 및 시민과의 소통방식 벤치마킹을 통하여 구민과의 효과적인 소통 및 의회 운영의 투명성 증대 방안 검토														
방문지 현황	○ 운영형태: 국제기구 ○ 설립연도: 1952년 ○ 가입국가: 193개국 ○ 주요조직 및 부서 - 주요조직: 사무총장 → 부사무총장 → 주요 국·부 - 주요부서 <table><tr><th>부 서 명</th><th>역 할</th></tr><tr><td>정치 및 평화구축국</td><td>분쟁 예방, 외교 중재, 정치 해결</td></tr><tr><td>평화유지활동국</td><td>UN 평화유지 임무</td></tr><tr><td>총회 및 회의관리부</td><td>총회·안보리 회의 운영</td></tr><tr><td>경제사회국</td><td>글로벌 개발 정책 지원</td></tr><tr><td>정보공보국</td><td>UN 홍보</td></tr></table> ○ 주요기능: 국제기구 유엔(UN)의 중심 사무소로서 국제 평화와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UN의 운영 및 회의 주관			부 서 명	역 할	정치 및 평화구축국	분쟁 예방, 외교 중재, 정치 해결	평화유지활동국	UN 평화유지 임무	총회 및 회의관리부	총회·안보리 회의 운영	경제사회국	글로벌 개발 정책 지원	정보공보국	UN 홍보
부 서 명	역 할														
정치 및 평화구축국	분쟁 예방, 외교 중재, 정치 해결														
평화유지활동국	UN 평화유지 임무														
총회 및 회의관리부	총회·안보리 회의 운영														
경제사회국	글로벌 개발 정책 지원														
정보공보국	UN 홍보														
사진	 														

연번	2	분야	의회 운영																			
방문지	국회의사당	도시	워싱턴D.C.																			
방문 목적	○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운영 및 입법과정 벤치마킹을 통해 기초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 모색 ○ 의회민주주의 운영 원리 탐색을 통해 기초의회의 정책 감시 기능 개선 방안 탐구 ○ 연방·주·지방 간 정책조정 구조 분석을 통해 중앙-광역-기초 간의 정책 연계 및 협력 모델 수립 필요성 검토																					
방문지 현황	○ 운영형태: 연방 입법부 ○ 구성형태: 양원제(상원 및 하원) ○ 주요조직																					
	<table><tr><th>구 분</th><th>명 칭</th><th>역 할</th></tr><tr><td rowspan="2">주요조직</td><td>연방의회</td><td>상·하원 구성 입법부</td></tr><tr><td>하위조직</td><td>상원위원회</td><td>법안 심의, 예산·정책 검토, 인사청문 등</td></tr><tr><td rowspan="3">지원부서</td><td>하원위원회</td><td>하원 법안 심사, 예산 승인, 행정부 견제 등</td></tr><tr><td>의회예산국</td><td>입법에 필요한 재정 분석, 예산 영향 평가</td></tr><tr><td>입법조사국</td><td>정책조사 및 의원 지원</td></tr><tr><td rowspan="2"></td><td>정부감사국</td><td>행정부 집행 예산 감사 및 평가</td></tr></table>			구 분	명 칭	역 할	주요조직	연방의회	상·하원 구성 입법부	하위조직	상원위원회	법안 심의, 예산·정책 검토, 인사청문 등	지원부서	하원위원회	하원 법안 심사, 예산 승인, 행정부 견제 등	의회예산국	입법에 필요한 재정 분석, 예산 영향 평가	입법조사국	정책조사 및 의원 지원		정부감사국	행정부 집행 예산 감사 및 평가
	구 분	명 칭	역 할																			
	주요조직	연방의회	상·하원 구성 입법부																			
		하위조직	상원위원회	법안 심의, 예산·정책 검토, 인사청문 등																		
	지원부서	하원위원회	하원 법안 심사, 예산 승인, 행정부 견제 등																			
		의회예산국	입법에 필요한 재정 분석, 예산 영향 평가																			
		입법조사국	정책조사 및 의원 지원																			
		정부감사국	행정부 집행 예산 감사 및 평가																			
		○ 주요기능: 미국 연방정부의 입법부 - 연방 법률 제·개정 및 폐지 - 연방정부 예산안 심의 및 승인 - 행정부 견제 및 감시																				
사진																						
																						

연번	3	분야	의회 운영														
방문지	워싱턴D.C.의회	도시	워싱턴D.C.														
방문 목적	○ 의회 운영 체계 벤치마킹을 통해 지방입법기관의 역할 강화 모델 학습 ○ 상임위원회 중심의 운영 체계 및 실무지원 시스템 비교·분석을 통해 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전문성 확보 전략 구체화 ○ 구민이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기반의 입법과정 운영 모델 탐색																
방문지 현황	○ 운영형태: 지방입법기관(특별구) ○ 구성형태: 단원제(의원: 13명) ○ 주요조직 <table><tr><th>명 칭</th><th>역 할</th></tr><tr><td>본회의</td><td>법률안, 예산안 심의 및 최종 의결</td></tr><tr><td>상임위원회</td><td>정책 분야별 관련 법안 및 예산 심의, 소관 부서·기관 감독 등 (상임위원회 구성: 11개 위원회)</td></tr><tr><td>의장단</td><td>회의주재 및 의회운영 총괄, 위원회 배정, 대외업무 추진 등</td></tr><tr><td>의회사무국</td><td>의회 행정 지원</td></tr><tr><td>입법지원실</td><td>법안 문안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제공 등</td></tr><tr><td>예산·정책분석실</td><td>예산안 분석,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및 정책 조사·효과 분석 등</td></tr></table> ○ 주요기능 - 법률 제·개정 및 폐지 등 지방 입법 기능 수행 - 워싱턴 D.C. 예산안 심의 및 승인, 행정부 견제 및 감시 등			명 칭	역 할	본회의	법률안, 예산안 심의 및 최종 의결	상임위원회	정책 분야별 관련 법안 및 예산 심의, 소관 부서·기관 감독 등 (상임위원회 구성: 11개 위원회)	의장단	회의주재 및 의회운영 총괄, 위원회 배정, 대외업무 추진 등	의회사무국	의회 행정 지원	입법지원실	법안 문안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제공 등	예산·정책분석실	예산안 분석,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및 정책 조사·효과 분석 등
명 칭	역 할																
본회의	법률안, 예산안 심의 및 최종 의결																
상임위원회	정책 분야별 관련 법안 및 예산 심의, 소관 부서·기관 감독 등 (상임위원회 구성: 11개 위원회)																
의장단	회의주재 및 의회운영 총괄, 위원회 배정, 대외업무 추진 등																
의회사무국	의회 행정 지원																
입법지원실	법안 문안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제공 등																
예산·정책분석실	예산안 분석,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및 정책 조사·효과 분석 등																
우리구 현황	○ 운영형태: 기초의회 ○ 구성형태: 단원제(의원: 17명) ○ 주요조직 <table><tr><th>명 칭</th><th>역 할</th></tr><tr><td>본회의</td><td>조례안, 예산안 심의 및 최종 의결</td></tr><tr><td>상임위원회</td><td>정책 분야별 관련 조례안 및 예산 심의, 소관 부서·기관 감독 등 (상임위원회 구성: 3개 위원회)</td></tr><tr><td>의회사무국</td><td>의회 행정 지원</td></tr></table> ○ 주요기능 - 조례 제·개정 및 폐지 등 지방 입법 기능 수행 - 영등포구 예산안 심의 및 승인, 결산승인권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한 집행기관 견제 및 감시			명 칭	역 할	본회의	조례안, 예산안 심의 및 최종 의결	상임위원회	정책 분야별 관련 조례안 및 예산 심의, 소관 부서·기관 감독 등 (상임위원회 구성: 3개 위원회)	의회사무국	의회 행정 지원						
명 칭	역 할																
본회의	조례안, 예산안 심의 및 최종 의결																
상임위원회	정책 분야별 관련 조례안 및 예산 심의, 소관 부서·기관 감독 등 (상임위원회 구성: 3개 위원회)																
의회사무국	의회 행정 지원																
사진	 																

연번	4	분야	교육·문화
방문지	뉴욕공립도서관	도시	뉴욕
방문 목적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공공도서관의 혁신적 운영 사례 조사 ○ 시민 포용형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 벤치마킹 ○ 장애인, 어르신,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디자인 적용 및 접근성 확보 전략 분석 ○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비영리 법인형 도서관 운영 모델 탐색 ○ 영등포구 도서관 현대화 및 정책 수립 시 적용 가능한 구조·기획방향 모색		
방문지 현황	○ 운영형태: 민간 비영리 독립법인 ○ 재정구조: 민간 기부금, 뉴욕시 보조금, 주연방 정부 보조, 자체 수익 등 다원적 구조 ○ 장서규모: 총 소장 자료 5,600만여점(도서·사진·지도·원고·영상 등 포함) ※ 연구 중심 컬렉션에는 구텐베르크 성경, 미국 독립선언문 초안 등 포함 ○ 디지털자원 - 90만 점 이상의 이미지 및 문서 자료 제공 - 앱 통해 e북·오디오북 통합 제공 ○ 교육 및 공공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연간 140만 명 이상 참여, 40,000개 이상의 현장 프로그램 운영 ○ 접근성: 음성 안내, 휠체어 좌석 등 장애인 맞춤 기술 완비, 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톡킹북 도서관 운영, 3D 측각 그래픽과 AI 보조 기술을 활용하는 최첨단 지원체계 구축		
우리구 현황	○ 도서관 체계: 영등포문화재단 위탁 운영 ○ 도서관 수: 구립도서관 8개(1개 개관 예정), 작은도서관 19개 ○ 총 장서수: 약 317,000권 (전자책 약 14,000권 포함) ○ 등록회원수: 약 216,000명 (구민 인구 대비 약 58%) ○ 접근성: 디지털 전환 및 정보접근성 개선필요, 작은도서관 공간적 제약 다수		
사진	 		

연번	5	분야	자치행정
방문지	한미경찰자문위원회	도시	뉴욕
방문 목적	○ 다문화 도시 내 민·관·경 협력체계 운영사례 조사 ○ 이민자 대상 안전 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책 확인 ○ 다문화 사회 내 사회통합 및 치안거버넌스 구축 방향 도출		
방문지 현황	○ 설립연도: 2017년 ○ 형태: 미국 연방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주요역할 및 활동 - 미국 내 한인 사회와 경찰·소방·보건 등 공공기관 간의 협력 및 유대관계 구축 - 미 전역 50개 주에 지역 지회를 두고 치안 및 안전 네트워크 운영 - 치안 문제 발생 시 연방보안관 사무소, 경찰국, 소방국, 병원 등과 연계하여 신속 대응 - 이민자 대상 법률 인식 제고 및 커뮤니티 기반 범죄 예방활동 전개 - 법집행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제도적 연계망 구축		
우리구 현황	○ 대림동은 서울시 내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치안 사각지대 및 다문화 갈등 문제를 겪고 있음 ○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치안 협력 조직으로 다문화 자율방범대가 활동 중임 - 총 3개 대대(대림1~3동) 100여명이 활동 중임(1개 대대 30명 내외) - 범죄 예방 활동(야간 순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경찰서 협력 하 치안봉사 ○ 각 대대당 월 300천원의 지원금(야간 활동비)		
사진	 		

연번	6	분야	복지
방문지	버겐 패밀리센터	도시	뉴저지
방문 목적	○ 아동·청소년·가족·어르신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형 커뮤니티 복지 서비스 모델을 조사하고자 함 ○ 다문화·한부모·저소득 가정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정서 지원, 상담 서비스의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자 함 ○ 향후 우리 구 청소년시설, 복지관, 주민센터 간 기능 연계 또는 복합화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통합 복지 모델로 활용하고자 함		
방문지 현황	○ 설립연도: 1898년(버겐 카운티 내 가장 역사가 오래된 비영리 단체) ○ 위치: 44 Armory Street, Englewood, New Jersey 07631, Bergen County ○ 프로그램: 통합 커뮤니티 서비스 - 어린이: 영유아용 돌봄서비스,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 가족: 워크숍, 가족 상담, 생활지원 서비스 - 어르신: 복지 상담, 요리, 사고 등		
우리구 현황	○ 관내 유사시설: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 사업목적: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사업형태: 공공기관 위탁(수탁자: 區 시설관리공단 운영) - 주요시설: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 체육관, 공영주차장 등 - 총사업비: 341,380천원(구비 100%)		
사진			

□ 현장시찰

연번	1	분야	교육·문화
방문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도시	뉴욕
방문 목적	○ 시민의 미술 접근성과 미적 감수성을 높이는 공공예술기관의 역할을 파악하고, 우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예술작품의 단순 전시를 넘어, 전시 기획 - 해설 - 참여 - 교육이 하나로 연결되는 콘텐츠 흐름 구조를 현장에서 이해하고자 함 ○ 세계 각지의 문화자산을 통합·보존·공유하는 대형 미술관의 소장품 관리 및 큐레이션 시스템을 관찰하여, 우리 구의 전시/아카이브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실무적 요소 수집		
방문지 현황	○ 관람객 수: 연간 약 350만 명 이상 (코로나 이전 기준 약 700만 명) ○ 교육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대상 맞춤형 해설 투어, 그룹 초청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 시니어, 시각장애인 등 대상 포용형 프로그램 다수, 온라인 강의, 실시간 큐레이터 토크 등 디지털 교육 강화 ○ 소장품 규모: 약 200만점(고대 이집트관, 유럽 회화관, 아시아관, 현대미술관 등)		
우리구 현황	○ 장소명: 영등포 아트스퀘어 ○ 위 치: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지하 2층 ○ 관람시간/입장료: 10:00~18:00/무료 ○ 공간구성 - Square A: 영등포구의 역사·문화·관광 정보 미디어 월 전시 - Square R: 관광 정보 안내, 기획전시, 소규모 공연 - Square T: 개방형 복합 예술공간, 대형 전시 및 공연		
사진	 		

연번	2	분야	교육·문화
방문지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도시	워싱턴D.C.
방문 목적	○ 과학·자연사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공공 교육 전시모델 벤치마킹 ○ 아동·청소년 중심의 체험형 콘텐츠 구성 방식 및 참여 유도 전략 파악 ○ 박물관의 전시-교육-디지털 콘텐츠 통합 운영 사례 조사 ○ 영등포구 내 도서관, 공공전시 공간, 청소년시설에 적용 가능한 참여형 - 콘텐츠 개발 시사점 확보		
방문지 현황	○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사 박물관으로, 과학·환경 교육의 대표 모델로 평가받음 ○ 다양한 세대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 구성과, 보존·연구·교육의 시스템을 갖춘 공공기관 ○ 특히 공룡 화석, 해양 생물, 광물, 인류 진화 등 폭넓은 전시 영역과, 과학 기반의 해설 프로그램이 강점 ○ 디지털 전환에도 앞서 있어 온라인 가상전시·AR·3D 콘텐츠 제공 사례가 풍부하며, 방문객 참여형 학습 시스템 운영은 구민 참여 콘텐츠 개발에 참고할 수 있음 ○ 약 1억 4,800만 점 이상의 생물·지질·고고학 표본 보유 ○ 연간 방문자 수: 약 440만 명 (2023년 기준) ○ 교육프로그램: 어린이 체험실, 실험실형 워크숍, 과학해설 프로그램, 전문 해설사, 과학자와의 대화, 전시 연계 강연 등		
우리구 현황	○ 관내 유사 시설: 한국잡지박물관, 국회 박물관, 독도체험관 등 ○ 자체 운영 박물관 현황: 없음 ○ 관내 유사 프로그램 현황: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 *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요 - 대상: 초등학생 이상 구민 1,500여명 - 추진내용: 과학문화 시설 전시 관람 및 체험 필요사항 제공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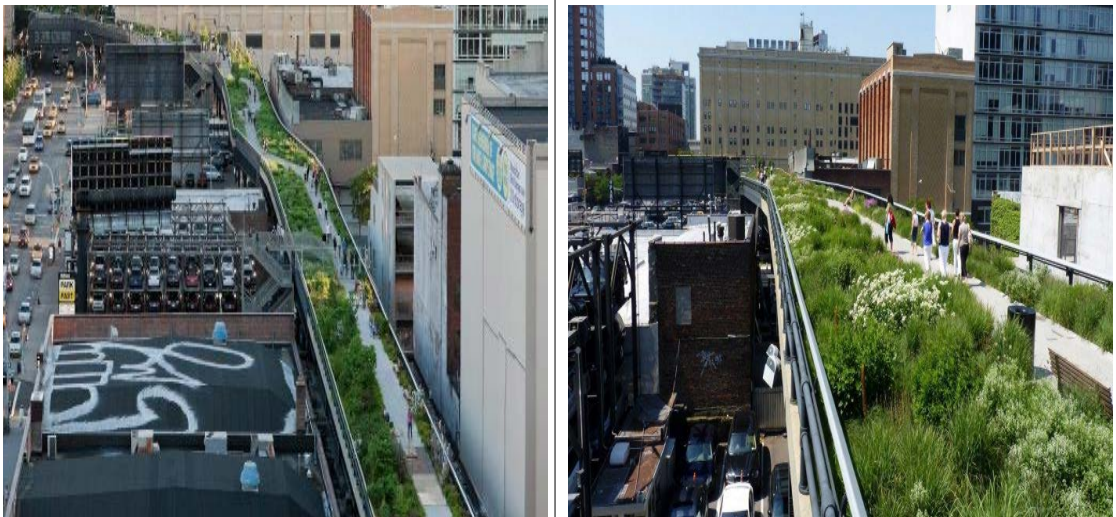
연번	3	분야	교육·문화
방문지	국립식물원	도시	워싱턴D.C.
방문 목적	○ 미국 국립식물원의 생태 기반 공간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영등포구가 추진 중인 정원도시 조성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어린이·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감각형 정원 구성, 포용 설계, 치유형 녹지 공간 운영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우리 구의 공공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조경 설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탄소중립·도시열섬 완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기후위기 대응형 정원정책의 교육적 효과와 주민참여 방식을 파악하고, 구민의 환경 감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함		
방문지 현황	○ 운영주체: 미국 연방정부 의회 ○ 연간 방문자 수: 약 100만 명 이상 (코로나 이전 기준) ○ 핵심 특징: 기후위기 대응형 콘텐츠 운영, 정원 디자인의 다양성 ○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다수 운영, 디지털 전환 시도 등 ○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식물원		
우리구 현황	○ 유사 시설: 없음. 전문 전시·교육 기능 갖춘 식물원 미보유 ○ 대체 공간: 꽃밭정원, 빗물정원, 한뼘·특화 정원 등 ○ 도심 속 정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시기후위기 대응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영등포형 정원 모델’ 구축 중 ○ 운영 프로그램: 계절 꽃심기 행사, 마을정원 해설사 활동, 환경정화 캠페인 등		
사진			

연번	4	분야	기념사업								
방문지	독립기념관	도시	필라델피아								
방문 목적	○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미국의 헌정사 발전과정과 시민자치의 근간이 된 제도 형성과정에 대해 이해 ○ 의회 운영에 있어 대표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 방안 모색										
방문지 현황	○ 명칭: 독립기념관 ○ 위치: 520 Chestnut Street ○ 운영시간: 09:00~17:00 ○ 건축: 1732년 착공, 1753년 완공 ○ 주요 역사적 사건 - 1775년, 조지 워싱턴의 대륙군 최고사령관 임명 - 1776년, 미국독립선언문이 채택 및 서명 - 1787년, 미국 헌법 제정 및 승인 ○ 주요명소										
	<table> <tr> <th>명소</th> <th>내용</th> </tr> <tr> <td>Assembly Room</td> <td>건국 아버지들이 모여 회의를 했던 장소로 워싱턴의 의자가 남아 있음 선언문 채택 등 역사적인 순간의 현장</td> </tr> <tr> <td>Supreme Court Chamber</td> <td>식민지 시대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이 사용하던 법정 원래 색채 복원 및 피고석 재현</td> </tr> <tr> <td>Syng 잉크스탠드</td> <td>1776~1787년 창립 문서 서명 당시 사용된 은제 잉크스탠드 미 현존 유물 중 하나</td> </tr> </table>			명소	내용	Assembly Room	건국 아버지들이 모여 회의를 했던 장소로 워싱턴의 의자가 남아 있음 선언문 채택 등 역사적인 순간의 현장	Supreme Court Chamber	식민지 시대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이 사용하던 법정 원래 색채 복원 및 피고석 재현	Syng 잉크스탠드	1776~1787년 창립 문서 서명 당시 사용된 은제 잉크스탠드 미 현존 유물 중 하나
	명소	내용									
	Assembly Room	건국 아버지들이 모여 회의를 했던 장소로 워싱턴의 의자가 남아 있음 선언문 채택 등 역사적인 순간의 현장									
	Supreme Court Chamber	식민지 시대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이 사용하던 법정 원래 색채 복원 및 피고석 재현									
Syng 잉크스탠드	1776~1787년 창립 문서 서명 당시 사용된 은제 잉크스탠드 미 현존 유물 중 하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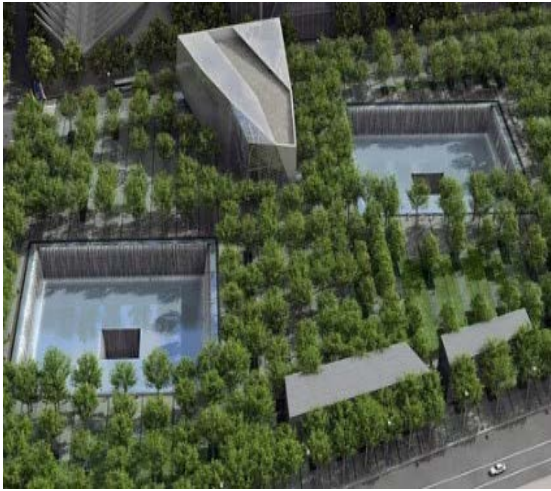
연번	5	분야	기념사업
방문지	자유의 종	도시	필라델피아
방문 목적	○ 역사문화 자산의 도시 브랜드화 사례연구 ○ 공공기념물의 보존과 활용 방식 학습		
방문지 현황 시사점	○ 위치: 526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19106 ○ 1752년에 영국 런던에서 주조되어 필라델피아로 운반됨 ○ 19세기 중반 심한 균열이 생겨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 균열이 오히려 ‘자유의 투쟁’ 상징으로 받아들여짐 ○ 종에 새겨진 문구 - “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un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 Lev. XXV. v X.” (레위기 25장 10절: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 상징성 - 노예 해방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시민권 운동 등 미국의 여러 자유와 인권 운동의 상징물로 사용됨 - 오늘날 미국 내뿐 아니라 전세계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잡음 ○ 시사점 - 우리구 지역 내 근현대사 유적이거나 시민공간을 어떻게 역사교육 및 지역 상징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탐구 필요		
사진			

연번	6	분야	기념사업
방문지	제퍼슨기념관	도시	워싱턴D.C.
방문 목적	○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토머스 제퍼슨의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기념하는 공공 기념시설의 역할과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자 함. ○ 역사 기념공간이 시민 교육, 정체성 형성, 관광자원 등 다기능 공공공간으로 활용되는 방식을 조사함 ○ 역사·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영등포구 내 공간 조성 및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기념공간의 메시지 설계, 건축 언어, 해설 콘텐츠 구성 방식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함		
방문지 현황	○ 운영주체: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 위치: 900 Ohio Drive, S.W., National Mall, Washington, D.C. 20024 ○ 방문객 수: 연간 200만 명 이상 ○ 시민 활용 방식: 연중무휴 무료 개방, 학교 단체 교육 방문, 시민 역사 해설 투어 등 ○ 단순한 정치인 기념이 아닌, 시민사회의 철학적 기반을 공간으로 구현한 사례, 시설의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를 건축으로 번역한 대표적인 공공문화시설 ○ 휠체어 진입 가능, 점자 안내 등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 기념 공간 설계의 우수 사례		
사진			

연번	7	분야	기념사업
방문지	링컨기념관	도시	워싱턴D.C.
방문 목적	○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인종 평등·시민권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통해 시민인권 교육, 정치참여 의식 고취, 공공리더십 학습 ○ 설치·운영 방식, 공공 공간과 기념 조성 전략 등을 참고하여, 향후 관내 기념공간 조성이나 공공행사용 랜드마크 조성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문지 현황	○ 위치: 2 Lincoln Memorial Circle, NW, Washington, D.C. 20037 ○ 운영시간: 24시간 ○ 입장료: 무료 ○ 연간 방문객수: 800만명 ○ 주요구성 - 건물 외관: 파르테논 신전 양식을 차용하여, 36개의 기둥은 36개의 주를 상징 (1865년 링컨 사망 시점) - 내부에는 5.8m, 175톤 규모 조각상이 있음 - 중앙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조각상(5.8m, 175톤) - 북쪽 방: 링컨의 Second Inaugural Address - 남쪽 방: Gettysburg Address - 융화, 정의 등의 주제를 담은 Jules Guerin의 벽화 장식 - 벽면에는 fasces, 독수리 문양, 장식용 화환 등이 함께 배치 ○ 특징 - 1963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I Have a Dream' 연설을 하며 시민권 운동의 상징적 순간을 열었고, 미국 사회 정의와 인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사진	 		

연번	8	분야	도시재생
방문지	하이라인공원	도시	뉴욕
방문 목적	○ 고가철도 활용 도시재생 성공사례 탐방 ○ 폐기된 인프라의 문화·관광 자산화 방식 조사 ○ 도시 내 선형 녹지 조성 및 생태계 회복 사례 조사 ○ 공공공간 내 설치미술 및 전시 운영 사례 수집(시민참여형 등)		
방문지 현황	○ 조성연도: 2006년 착공, 2009년 1단계 개장, 2014년 전체 개장 ○ 위치: 820 Washington Street, New York, NY 10014 ○ 조성배경: 1930년대 화물 운송용 고가철로(웨스트사이드 철도)를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 유형: 고가 선형 공원 (Linear Park / Elevated Park) ○ 총 길이: 약 2.3km ○ 면적: 약 24,000천m^2 이상 ○ 주요기능: 산책로, 조경(자생식물), 예술 전시, 휴식 공간, 공공 이벤트 등 ○ 운영주체: 비영리단체 Friends of the High Line + 뉴욕시 ○ 상징성: 하이라인 공원은 도시 속 녹지 공간의 혁신 모델로 인정받으며, 이후 여러 나라의 유사한 프로젝트(서울로7017 등)에 영향을 준 대표적 사례		
사진			

연번	9	분야	도시재생
방문지	리틀아일랜드	도시	뉴욕
방문 목적	○ 허드슨강 옛 부두(Pier 54)를 재활용한 수변 공공공간 조성 사례 조사 ○ 도시 내 유휴 공간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전환한 성공 모델 분석 ○ 민관협력 거버넌스 분석(민간 자본 + 뉴욕시 행정 협업 구조)		
방문지 현황	○ 위치: 미국 뉴욕 맨해튼 허드슨강변, Pier 55 자리 (14번가 인근) ○ 조성배경: 허리케인 ‘샌디’로 파손된 옛 부두 재건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 ○ 유형: 수변 인공섬형 공공공간 (공원 + 공연장) ○ 조성연도: 2021년 5월 21일 ○ 면적: 약 10,000㎡ (약 3,000평) ○ 설계: Thomas Heatherwick (헬리웁 스튜디오) + MNLA 조경설계 ○ 총사업비: 약 2억 6천만 달러 (거의 전액 민간 기부) ○ 구조특징: 280개 이상의 튜립 모양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부상형 인공섬 형태 ○ 주요시설: 산책로, 전망대, 잔디광장, 687석 야외 원형극장, 소규모 공연장 등 ○ 프로그램: 무료 또는 저렴한 문화예술 공연, 커뮤니티 참여형 프로그램 ○ 운영주체: 비영리단체 Friends of the High Line + 뉴욕시 ○ 상징성 - 도심 속 자연 + 예술 + 공공성을 결합한 상징적 공간 - 친환경 도시재생 및 민간주도 공공사업 모델의 대표 사례 - 하이라인 공원과 연결되어 도보 관광 루트로 활용도 높음		
우리구 사례	○ 공원명: 선유도공원 ○ 위 치: 영등포구 선유로 343 ○ 이용시간: 06:00~24:00 ○ 주요특징 - 환경재생 생태공원: 과거 정수장 시설을 보존하여 정원, 수생식물원, 바람의 언덕 등 다양한 테마 공간 구성 - 선유교 전망대: 양화대교와 연결된 보행자 전용 다리 - 한강 전망 및 문화체험: 다양한 전시와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진			

연번	10	분야	보훈사업
방문지	911메모리얼파크	도시	뉴욕
방문 목적	○ 대규모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공공간 조성 방식 탐방 ○ 피해자 유가족, 생존자, 시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 및 운영 구조 ○ 추모와 관광의 균형을 고려한 운영 방식 ○ 테러 이후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의 도시계획, 공간 재배치 사례 ○ 대규모 국가적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징공간의 역할 분석		
방문지 현황	○ 위치: 180 Greenwich Street, New York, NY 10007, USA ○ 조성배경: 2001년 9월 11일 미국 동시다발 테러(세계무역센터 붕괴) 희생자 추모 및 교육 목적 ○ 개장일: 메모리얼 2011년 9월 11일 / 박물관 2014년 5월 21일 ○ 면적: 약 30,000㎡ 이상 (메모리얼 부지 기준) ○ 운영주체: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비영리재단) ○ 추모대상: 약 3,000명 (2001년 9.11 테러,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 희생자) ○ 주요시설 - Reflecting Pools (2개, 쌍둥이빌딩 터 위에 설치된 추모 수조) - 박물관 (지하 공간에 설치, 잔해·기록·생존자 증언 등 전시) - Survivor Tree, 추모 명판, 전시관 등 ○ 상징성 - 부재의 존재(absence)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축 디자인 - 세계 최대 규모의 테러 추모 및 교육 공간 - 국가적 재난에 대한 공적 기억과 시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장소		
사진	 		

연번	11	분야	보훈사업
방문지	한국전 참전기념비	도시	워싱턴D.C.
방문 목적	○ 한국전쟁(1950~1953)에 대한 미국의 기억 방식 및 추모 공간 운영 사례 탐방 ○ 미국 연방정부와 재향군인회, 민간 단체의 협력 사례 분석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공공공간 운영 전략 학습 ○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동 기념행사, 헌화식 등 유공자 추모 외교 사례 참고 ○ 해외 거점 보훈 기념시설로서의 외교적 활용 가능성 탐색		
방문지 현황	○ 위치: 워싱턴 D.C., 내셔널 몰(National Mall), 링컨 기념관 남쪽 ○ 준공일: 1995.7.27.(한국전 정전협정 42주년) ○ 조성배경: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 군인과 UN군 희생자들을 추모 ○ 주요 조형 요소 - 실물 크기의 군인상 19명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다양한 병과) - 벽화 벽(Mural Wall): 화강암에 전쟁 장면과 병사 얼굴 2,400여 개 각인 - Pool of Remembrance(추모 연못): 희생자 숫자 새겨짐 - Flagpole with United Nations Wall: UN 참전 22개국 기념 ○ 추모대상 - 미군 전사자: 약 36,634명 - 실종자: 약 7,140명 - 부상자: 약 103,000명 -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174명 (2022년 명단에 포함됨) ○ 운영주체: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 상징성 - 미국 내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적 기억공간 - 전쟁의 긴장감과 희생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상징물 구성 - 2022년 확장을 통해 한미 공동 추모의 의미 강화		
사진			

연번	12	분야	정원·(수변)공원
방문지	센트럴파크	도시	뉴욕
방문 목적	○ 도시 중심부의 대규모의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사례 탐구를 통해 영등포구의 정원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 ○ 공원 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및 문화·체육 행사 운영 방식 벤치마킹 ○ 센트럴파크 주변 상권과 문화 산업의 연계 사례 탐구를 통해 공원 기반의 도시 재생 전략 모색		
방문지 현황	○ 시공기간: 1857년 착공, 1873년 완공 ○ 위치: 뉴욕 맨해튼 중심부 ○ 면적: 약 3.41km^2(여의도의 약 2배 규모) ○ 운영주체: 뉴욕시 공원국 + 센트럴파크 보수재단(비영리기관) 공동 운영 ○ 주요시설 - 남부 구역: 베데스타 테라스(공원 중심부 대표 건축물), 셰이프 호수, 더 물과 엘름 스트리트(거리 공연과 예술 전시 공간으로 활용) - 중부 구역: 센트럴파크 동물원, 델라코트 극장 - 북부 구역: 벨베데레 캐슬(전망대), 잉글리시 가든(정원 산책로) ○ 특징 - 시민들에게 도심 속 자연 휴식 공간 제공 - 공원 설계 당시의 역사적 경관과 조경원칙 보존 - 연중 다양한 공연과 전시 개최로 문화·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도 활용 -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 공원 운영 사례로 평가		
사진			

IV

출장내용(공식방문)

1. UN 본부

[뉴욕]

□ 개 요

- 방 문 일: 2025. 9. 5.(금)
- 방문장소: 미국 뉴욕 유엔본부 (United Nations Headquarters)
(405 E 45th St, New York, NY 10017, USA)
- 방문 목적
 - UN의 인권·평화·기후변화 등 국제 의제 논의 구조와 다자 협력체계 이해
 -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다문화·환경·인권 분야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확인
 - 영등포구의 정책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 설계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 영등포구 지역 의제를 세계적 가치와 연계해 정책·입법 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현장질문 및 답변

Q1. 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까?

A1. (UN 담당자)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우크라이나 사태, 미얀마 문제 등이 주요 의제였고, 현재 분쟁지역 관련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어 입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UN이 국제 현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Q2. 현재 대한민국이 UN 안보리 의장국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장국은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A2. (UN 담당자)

안보리 의장국은 매월 돌아가며 맡게 되는데, 한 달 동안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며 의제를 조정하고 회의 일정과 순서를 결정하며, 국제사회에 안보리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위상과 책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Q3.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나요?

A3. (UN 담당자)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결의안 채택에는 9개국 찬성과 함께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어야 합니다. 우선 평화적 조치(중재, 휴전결의, 특별사절 파견 등)를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 제재나 군사행동 등 강제조치를 논의합니다.

Q4. UN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특히 안보리의 비토권 (Veto Power)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A4. (UN 담당자)

UN은 크게 총회, 안보리,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총회는 193개 회원국이 1국 1표로 결의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적 여론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 결의안 채택에는 9개국 찬성과 함께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비토)가 없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한 나라의 반대가 국제적 합의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집행자이자 중재자로서 특별사절 파견·비공식 협상 등을 통해 갈등을 조정합니다.

비토권은 국제 분쟁 해결을 제약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국 간 직접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장치 역할도 합니다.

Q5. UN의사결정 방식에서 우리 구의회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A5. (UN 담당자)

UN 구조는 합의 중시, 소수 의견 존중, 조정자 역할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총회처럼 모든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보리 비토권은 한계가 있지만, 소수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중재자 역할처럼, 의회 의장·위원장도 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중재해야 합니다.

또한 UN에서 채택되는 결의는 구속력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사회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채택하는 결의안도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집행부와 지역사회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여론을 모으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의회 결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Q6. UN의 결의는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니까?

A6. (UN 담당자)

UN 결의는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3개 회원국이 참여한 ‘세계 여론’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치적·도덕적 구속력이 큼니다. 인권, 기후위기, 개발 의제 등에서 국제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안보리 결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한 사안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으로, 회원국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재, 평화유지군 파견, 군사조치까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UN 결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발하고 회원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Q7. 곧 UN 총회가 열려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총회에서는 한국의 역할이 무엇으로 기대되니까?

A7. (UN 담당자)

UN 총회는 193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최대 국제회의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일반토의에서 연설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 지속가능발전 이행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또한 정상회의·양자회담 등을 통해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Q8. UN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또, 그 가치가 왜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A8. (UN 담당자)

UN의 모든 활동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가치로 모아집니다. 그 구체적 실천 도구가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입니다. 2015년 반기문 당시 사무총장의 리더십 아래 전 세계가 합의하여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빈곤·기아·기후변화·교육·성평등·평화 등 약 20개 분야의 핵심 과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회원국이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약속입니다.

Q9. 특히 한국인 사무총장이 주도한 합의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자긍심을 주며, 지방정부와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A9. (UN 담당자)

지속가능발전 실현은 결국 지역에서 이뤄집니다. 지방정부는 생활 속 기후정책, 교육·문화 기반 참여 확대, 지역기업과의 협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 도시들이 자발적 지역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한국 자치구도 참여를 확대하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Q10.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A10. (UN 담당자)

모든 목표가 중요하지만, 지방정부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기후위기는 교육·보건·빈곤 등 다른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머지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교통 부문 감축, 자원순환 강화 등은 지역 차원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방정부가 주민 참여와 지역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미래 세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우리 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점검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Q11. 기후위기 대응에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지방적 접근법은 무엇입니까?

A11. (UN 담당자)

UN은 아동·여성·저소득층을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지방정부는 폭염 대비 냉방 지원, 재난 시 학습권 보장, 다문화·이주민 가정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예산과 조례로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Q12. UN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도로·벽돌 같은 프로젝트는 지방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요?

A12. (UN 담당자)

핵심은 공공-민간-시민의 파트너십입니다. 기업은 기술을, 지방정부는 제도와 부지를, 시민은 참여를 담당해야 지속성이 담보됩니다. 주민에게 플라스틱 수거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가 성과를 높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Q13. UN에서 말하는 ‘파트너십’은 지방의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A13. (UN 담당자)

파트너십은 정부 간 협력만이 아닙니다. 의회·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평가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지방의회는 감시자일 뿐 아니라 촉진자로서, 지역 기업·대학·시민단체가 의정활동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Q14. 재난 상황에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A14. (UN 담당자)

낸시 레이건이 기증한 이동식 교실 키트는 200달러의 저비용으로 제작되어 3일 내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속에서도 교육권을 보장하는 UN의 대표적 모델입니다.

□ 시사점

○ 의회 운영 측면

- UN 의사결정 과정은 합의제 운영, 소수 의견 존중, 조정자 역할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루어짐. 단순한 다수결보다 합의 형성을 중시하고, 거부권 제도를 통해 소수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며, 사무총장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임. 이러한 방식은 지방의회 운영에도 적용 가능함. 영등포구의회는 합의제 문화를 강화하고, 소수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의장과 위원장이 적극적 중재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함. 또한 UN 결의 사례처럼 지방의회 결의안도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여론을 모으는 힘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음. 따라서 「결의안 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구청장이 후속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면, 결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특히, 이번 방문은 의회 스스로가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음. 영등포구의회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종이 없는 의회 구현과 의정활동 전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을 생활 속에서 앞장서 이끌어 나가는 의회로 거듭날 것임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 UN은 기후위기를 “전 인류의 공동과제”로 규정하고,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근거한 정책 수립, 정의로운 전환 개념 도입,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가 성공의 열쇠임을 강조. “Think globally, act locally(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원칙처럼, 지방의회가 국제적 흐름을 지역 정책과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함. 기후위기 대응은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정부,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음

○ 재난 상황에서의 교육권 보장

- UN에서 확인한 이동식 교실 키트 사례는 재난 속에서도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 모델임.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 기본 조례」에는 학습권 보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함. 따라서 임시 교실 설치, 교육 기자재 비축, 취약계층 아동 우선 지원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함

□ 영등포구의회 차원의 실천 계획·구정 활용방안

○ 의회 운영 혁신

- 영등포구의회는 회의 과정에서 다수와 소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의장과 위원장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갈등조정자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음. 특히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아직 의장·위원장의 갈등 조정 권한을 명문화한 사례가 없는 만큼 우리 의회가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임
- 더불어 의회 자체의 운영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겠음. 회의 자료 전자화, 종이 없는 회의 운영, 일회용품 없는 의정활동을 제도화하여 구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친환경 의회로 자리매김하겠음.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약속을 가장 가까운 생활 현장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임

○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 발의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결의안」을 발의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천명하고, 구민 참여와 기후교육 강화, 기후 복지 및 취약계층 보호 등 구체적 촉구 사항을 담을 것임

○ 기후위기 대응 조례 개정

-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개념 추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별도 장 신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강화, 구청 전담부서 설치 노력 의무화 등을 반영하겠음. 이를 통해 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보호와 국제적 책무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겠음

○ 기후위기 대응 구청 행정체제 개선 촉구

- 서울시 노원구가 탄소중립국을 설치해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영등포구청에도 유사한 조직 신설을 촉구하겠음. 이를 통해 구청이 기후위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할 것임

○ 기후위기 대응 국제·도시 네트워크 연계

- UN이 강조한 다자 협력 정신에 따라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함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 도시 네트워크와의 교류도 확대하겠음. 이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선도적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겠음

○ 재난 상황 교육권 보장 제도화

- 영등포구의회는 재난 속에서도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음
- 개정안에는 재난 시 임시 교실 설치와 교육 기자재 비축, 취약계층 아동 우선 지원, 교육청·학교·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할 예정임.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구민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음

○ UN 본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핵심 “국제적 책임과 지역적 실천의 연결”

- 영등포구의회는 이번 출장을 단순한 국제 기구 방문이 아닌, 구민의 삶의 안전 보장, 미래 세대 보호, 국제적 책임 이행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기반으로 삼아 나가겠음

□ 현장 사진



<UN 본회의장 앞 - 기관 담당자 설명>



<UN 한국 대표부 건물 앞>



<UN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 설명>



<UN 안보리 회의장 - 기관 담당자와 간담회>

2. 국회의사당

[워싱턴 D.C.]

□ 개 요

- 방 문 일: 2025. 9. 6.(토)
- 위 치: 20004 District of Columbia, Washington
- 방문목적
 -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운영 및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초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 모색
 - 의회 민주주의 운영 원리 탐색을 통해 기초의회의 정책 감시 기능 개선 방안 탐구
 - 의사당 내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벤치마킹을 통해 구민 친화적인 공간 조성

□ 현장질문 및 답변

Q1.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법안에 대해 양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 미 상원과 하원의 협의와 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A1. (국회의사당 담당자)

상·하원이 법안을 여러 번 수정해 주고 받으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거나, 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를 구성해서 여기서 조정된 단일 법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최종 조율 과정을 통해 상·하원에서 법안을 같은 형태로 통과시킵니다.

Q2. 미국 국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의회 활동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나요?

A2. (국회의사당 담당자)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이 있고, 이 외에 공청회, 의견 제출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방식이 점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Q3. 예산안 심의에서 하원과 상원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A3. (국회의사당 담당자)

헌법상 조세 법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먼저 발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원 세출위원회가 각 부문별로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그 후 상원은 하원에서 넘어온 예산 결의안과 세출법안을 심의하고 수정합니다. 이때 서로의 예산안에 차이가 있으면 협의위원회를 통해 절충하여 표결로 확정을 짓습니다.

Q4. 상·하원 의원들의 평균 임기 지속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4. (국회의사당 담당자)

상·하원 의원들의 임기는 각각 6년,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 상원의원은 평균 10년 정도, 하원 의원은 8년 정도로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들의 임기는 정당 지지 기반이나 정치적인 상황 같은 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지죠.

Q5. (시설 견학 중) 여기에 있는 발코니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A5. (국회의사당 담당자)

이 발코니는 이 건물을 견학하기 위해 찾아온 방문객들을 위한 것입니다. 상원이나 하원이 회기 중일 때는 의사진행 과정을 참관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기 중에는 의사당 방청석 패스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처럼 외국에서 오신 경우에는 방문객센터의 위·아래 층에 있는 예약 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지금도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는데, 매년 얼마나 많은 방문객들이 오는지, 그리고 장애인이나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6. (국회의사당 담당자)

매년 약 300만 정도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방문자센터 직원에게 요청 시 휠체어를 대여해 드리고 있고, 관람을 위한 수화 통역이나 점자 브로셔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아동을 대상으로는 모의 의회와 체험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죠.

□ 시사점 및 영등포구의회 차원의 실천 계획·구정 활용방안

○ 민주적인 협의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 미 의회의 경우, 상원과 하원 간의 법안 내용이 다를 때 협의위원회를 통해 그 차이를 조정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
-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 간 교차 발의를 하거나, 구민 간의 복합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향후 합의 도출의 공식적인 장치를 마련할 경우, 사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 진행을 돕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여 균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미 의회에서는 모의 의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을 위한 역할극 프로그램, 전용 체험 공간 등을 운영 중
- 현재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이 유일
-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이 참여할 수 있고 영등포구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체험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 미국 국회의사당에서는 휠체어 대여, 청각 보조 장치 및 점자 문서, 수화 해설 제공 등 장애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 중
- 우리 의회도 회의 중 실시간 수어 통역 서비스를 최초 도입하는 등 정보 접근성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분화된 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상황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 주민들이 정책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배리어 프리(Barrier-Free) 환경 조성

□ 현장 사진



<국회의사당 - 기관 담당자 브리핑 및 설명>



<국회의사당 기관 담당자와 단체사진>



<국회의사당 앞 단체사진>

3. 워싱턴D.C.의회

[워싱턴D.C.]

□ 개 요

- 방 문 일: 2025. 9. 8.(월)
- 면 담 자: Anita Bonds
- 위 치: 135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004
- 방문목적
 - 의회 운영 체계 벤치마킹을 통해 지방 입법기관의 역할 강화 모델 학습
 - 상임위원회 중심의 운영 체계 및 실무지원 시스템 비교·분석 통해
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전문성 확보 전략 구체화
 - 구민이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기반의 입법과정 운영 모델 탐색

□ 현장질문 및 답변

Q1. 의원의 수에 비해 위원회가 많은 것 같은데 총 몇 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의원 한 명이 평균 몇 개의 위원회를 맡고 있나요?

A1. (워싱턴D.C. 의원)

총 11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의원 전체가 속한 전원 위원회 (Committee of the whole)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의원 각각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총 10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의원이 3~4개 정도의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Q2. 의원(면담자)님께서는 전역 의원(At-Large Member)이라고 들었는데 D.C.의 다른 지역구 의원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 (워싱턴D.C. 의원)

우리 D.C에는 저 같은 5명의 전역 의원(At-Large Member)과 8명의 지역구 의원(Ward Member)이 있습니다. 전역 의원은 D.C.전체의 투표로 선출되어 도시 전체를 대표하는 정책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은 D.C. 8개의 지역에서 1명씩 선출되어 그 지역의 현안에 집중하죠.

Q3.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3. (워싱턴D.C. 의원)

우리는 보통 일련의 커뮤니티 회의를 통해 그 구역에 있는 주민들을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하곤 합니다. 또한, 우리 워싱턴D.C.는 자문 이웃 위원회(Advisory Neighborhood Commissions)를 운영하고 있는데, 245명을 주민 투표로 선출합니다. 자문 이웃 위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주민들과 매월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Q4. 워싱턴D.C.의 예산은 총 어느 정도이며 주로 어디에 투입되고 있나요?

A4. (워싱턴D.C. 의원)

워싱턴D.C.의 총 예산은 연 200억 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요. 그리고 8~9% 정도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며 주로 의료보험에 쓰입니다. 따라서 연 200억 달러 중 약 12억 달러는 의료보험에, 약 15억 달러는 교육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Q5. 교육 같은 경우, 주로 주 정부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최근에 연방 정부 차원의 교육을 없애고 있는데 연방 차원에서 주에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교육시스템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A5. (워싱턴D.C. 의원)

교육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한해 연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만 공공 시스템과는 별도로 “차터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차터스쿨을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비용을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Q6. D.C.를 대표하는 하원 의원의 부재로 정치적 대표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워싱턴D.C.의 숙원사업이나 연방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연방정부와의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충하는지 궁금합니다.

A6. (워싱턴D.C. 의원)

다른 주와는 달리 우리는 법안 통과 후 최종 승인을 위해 의회로 법안을 보내는데, 이 법안은 심의를 위해 30일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 심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Delegation”이라는 표결권이 없는 대표를 통해서나마 우리 시의 사정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내곤 합니다.

Q7. 연방 의회에서 투표권이 없는 D.C.가 여전히 많은 주를 합친 것보다 연방에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여 의회에서 실질적인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7. (워싱턴D.C. 의원)

1973년 홈 룰 도입 이후로 우리 D.C.는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의 상태가 좋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당파적 대립으로 우리 시가 2명의 상원의원과 1명의 대표를 갖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70만 주민을 위한 우리의 대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주민들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시사점 및 영등포구의회 차원의 실천 계획·구정 활용방안

○ 주민 직접 참여 제도 도입

- 상대적으로 인구 수 대비 적은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워싱턴D.C. 의회에서는 “자문 이웃 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
- 자문위원들은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그들의 의견은 ‘상당한 비중’을 두고 고려될 수 있도록 규정됨
- 갈수록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역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
-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 전문 분야 인력 확충

- D.C.의 경우 의원 개별 사무실에 배치된 직원 외에도 의회 중앙의 공통 지원 부서가 존재
- 법률 검토, 조례안 초안 작성 등을 담당하는 입법자문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과 예산안 심사 등을 전담하는 재정분석실(Office of the Budget Director) 등 전문 지원 부서가 존재

- 법률 검토, 재정 분석 등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경우, 의회 내 전문 역량을 갖춘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 MOU 체결을 통한 상호 발전 방향 모색

- 영등포구와 워싱턴D.C.는 지방의회의 구조적인 측면, 경제·상업의 중심지와 주거지가 공존하는 생활환경, 해당 지역 내 각각 국회와 연방 의회가 존재하여 중앙 정치와 가까운 환경에 놓여 있는 등 많은 공통점이 존재
- 양 도시가 가진 우수한 정책과 제도의 직접적인 적용이 용이하여 협약 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 체결 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통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관내 청소년 및 청년들의 교류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장 사진



<워싱턴 D.C.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워싱턴 D.C. 의회 의원 기념품 교환식 및 단체사진>



<워싱턴 D.C. 의회 앞 단체사진>

□ SNS 및 보도자료

Instagram
로그인
가입하기


Council of DC
@councilofdc · 14m

We were honored to welcome members of the Yeongdeungpo District Council to the Wilson Building to learn about each other's work

The Yeongdeungpo District is home to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 is part of Seoul Capital Area, the 4th most populous metro area in the world




councilofdc · 팔로우


councilofdc · 3주

We were honored to welcome members of the Yeongdeungpo District Council to the Wilson Building to learn about each other's work

The Yeongdeungpo District is home to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 is part of Seoul Capital Area, the 4th most populous metro area in the world

+


parkhyunwoo_official · 3주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welcome the members of Yeongdeungpo District Council.

좋아요 답글 달기

♡
💬
📌

좋아요 19개
9월 9일

좋아요 또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관련링크 주소: <https://www.instagram.com/p/DOWeydggH9C/?igsh=MXFkN2lzcBjNXc0ZA==>

- 53 -

4. 뉴욕공립도서관

[뉴욕]

□ 개 요

- 방 문 일: 2025. 9. 10.(수)
- 방문장소: 뉴욕공립도서관 (New York Public Library)
(476 5th Ave, New York, NY 10018, USA)
- 방문 목적
 - 세계 최대 공공도서관의 운영 체계, 프로그램, 자원 구조를 직접 확인
 -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통합 서비스 및 지역 커뮤니티 연계 모델 학습
 - 영등포구립도서관(8개소) 및 작은도서관(19개소) 운영 개선에 활용할 시사점 도출

□ 현장질문 및 답변

Q1. 뉴욕공립도서관은 단순 열람실을 넘어 커뮤니티 허브로 기능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도서관은 아직 독서·대출 중심인데, 귀 도서관처럼 주민 건강·진로·생활 서비스를 접목하려면 어떤 운영 모델이 필요할까요?

A1. (도서관 담당자)

저희는 도서관을 지역 생활 플랫폼으로 정의합니다. 진로 상담, 이력서 작성, 건강·웰빙 페어 등 주민 맞춤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이용자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행정·비영리·교육기관과의 다자 협력 구조가 핵심입니다.

Q2. 영등포구는 청소년 대상 독서·문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귀 도서관이 운영하는 ‘틴센터(Teen Center)’는 어떤 철학과 운영 노하우로 만들어졌습니까? 또 구립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A2. (도서관 담당자)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공간을 두고, 3D 프린터·녹음실·제작공간을 설치했습니다. 단순 열람이 아니라 창작·자율 활동 중심으로 설계했고, 청소년이 직접 기획단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자치행사가 도서관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Q3. 뉴욕공립도서관은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찾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자 지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A3. (도서관 담당자)

저희는 ‘콜먼 펠로우십(Coleman Fellowshi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학년도 15명을 선발하여 9~10개월 동안 도서관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유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누구든 지원할 수 있으며, 소장 자료와 연구 공간, 학문 공동체와의 교류 기회가 제공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박사논문이나 저서를 완성했습니다.

Q4. 귀 도서관의 사례를 우리 구에 적용한다면 어떤 점이 핵심이 될까요?

A4. (도서관 담당자)

규모와 재정은 다르더라도 소규모 ‘지역 펠로우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컨대 지역 작가나 청년연구자를 선발하여 일정 기간 자료 접근권과 소정의 지원을 제공하면, 지역의 문화·역사 연구가 활성화되고 도서관이 지식 창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Q5. 영등포구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귀 도서관의 다언어 서비스 인력 운영은 어떻게 지역 통합에 기여했습니까?

A5. (도서관 담당자)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언어권 직원이 주민과 직접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도서관은 언어적 장벽을 넘어 지역 통합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라도 1~2명의 다문화 코디네이터 배치가 큰 효과를 냅니다.

Q6. 영등포구는 초·중·고교와의 연계가 아직 부족합니다. 귀 도서관은 학교 연계 필드트립을 어떻게 설계해 학생 학습과 지역 정체성을 동시에 살립니까?

A6. (도서관 담당자)

교사와 협력해 커리큘럼 기반 투어를 운영합니다. 단순 견학이 아니라 과제·창작 활동을 포함해 학습-체험-결과물이 연결되도록 설계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도서관을 생활 속 학습 거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Q7. 영등포구도 AI 활용과 전자자료 확충을 고민합니다. 귀 도서관은 AI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A7. (도서관 담당자)

AI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부 위원회를 통해 위험·효과를 검토하고, 전자책·DB 접속 확대, 코딩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Q8. 귀 도서관은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A8. (도서관 담당자)

네, 저희가 운영하는 ‘Library After Hours’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평소 폐관 이후에 도서관을 개방하여 공연, 전시, 토론, 드래그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로써 도서관은 낮에는 학습·연구 공간, 밤에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기능하며, 시민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Q9. 영등포구도 도서관을 지역 문화거점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 도서관의 ‘Library After Hours’ 같은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까요?

A9. (도서관 담당자)

‘Library After Hours’는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해 만든 문화 확장 모델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을 단순 열람실이 아니라 주민이 모이고 소통하는 문화 허브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Q10. 영등포구가 이러한 문화 확장 모델을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A10. (도서관 담당자)

핵심은 지역성과 협력입니다. 지역 예술인·청년단체·학교와 연계해 소규모 공연, 전시, 창작 워크숍을 도서관에서 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도 주민 동아리 낭독회, 음악회, 사진전 등을 야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도서관이 지식과 문화가 만나는 거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습니다.

Q11. 뉴욕공립도서관은 방대한 조직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운영 재원은 어떤 구조로 마련되니까?

A11. (도서관 담당자)

저희 재원의 약 70%는 뉴욕시정부, 20%는 뉴욕주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연방정부 지원은 극히 적고, 나머지는 민간 기부와 후원으로 충당합니다. 즉, 기본 운영은 공공재원으로 뒷받침하되, 프로그램 확장과 혁신은 다양한 파트너십과 기부 등의 민간 협력을 통해 이뤄집니다.

Q12. 말씀하신 기부와 후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운영하는 제도나 전략이 있습니까?

A12. (도서관 담당자)

저희는 별도의 개발 부서를 두어 기업·재단·개인 기부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프로그램·전시·특정 공간을 후원하는 스폰서십 모델을 운영하고, 기부자 이름을 기념 공간이나 간행물에 표기해 가시성을 높입니다. 무엇보다 “도서관이 곧 시민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기부 참여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시사점

○ 도서관의 문화거점 기능

- 단순히 열람 공간을 넘어 공연·전시·강연, 저자와의 만남, 야간 개방 행사(Library After Hours) 등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함. 이는 도서관을 지식 전달 기관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생활문화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줌. 특히 청소년센터·복지관의 기능까지 아우르는 통합 공공서비스 허브로 발전시켜 세대 간 통합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라는 장점을 실현하고 있음.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영등포구의 도서관을 ‘책 대여 공간’에서 ‘주민 생활 거점’으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청소년 주도 프로그램의 효과

- Teen Center, Teen Ambassador, Anti-Prom 등 청소년이 직접 참여·기획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기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서관을 친숙한 성장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음. 단순한 이용자가 아닌 ‘주체적 기획자’로서 청소년을 존중하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큼

○ 연구자 및 창작자 지원 모델

- Coleman Fellowship처럼 국제 연구자에게 장기간 연구 공간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는 도서관을 학문·창작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 지역 연구자와 도서관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때, 도서관은 단순 보관소가 아니라 ‘지식 생산의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음

○ 디지털 역량 강화와 포용적 서비스

- Tech Center의 무료 코딩·컴퓨터 교육, 다언어 서비스 운영 사례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다문화 수용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모델이었음. 특히 러시아어·스페인어·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 배치와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문화 사회로 가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

○ 재원 다변화와 지속가능성

- 뉴욕공립도서관은 시 재정 지원 외에도 기부·후원·재단 편당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특히 기부자 관리와 펀드레이징 전담 조직을 두어, 갈라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이는 공공도서관 운영이 반드시 공적 재원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민간 협력과 기부 문화를 제도적으로 결합할 때 더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임.
- 영등포구립도서관도 「후원금 관리 조항」을 마련하여 기부금 관리 절차와 기부자 예우를 제도화하고, 특정 프로그램(청소년 창작활동, 다문화 서비스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주민 참여형 모금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브랜드화 전략

- 뉴욕공립도서관은 모든 분관에 빨간 사자 깃발을 설치해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있음. 이는 주민에게 도서관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인식시키고, 도시의 자부심을 고양하는 효과를 가져옴. 영등포구 역시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 통합된 외부 표식·브랜딩을 도입한다면, 이용률 제고와 문화도시 위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영등포구의회 차원의 실천 계획·구정 활용방안

○ 도서관 기능 확장 및 문화거점화

- 영등포구립도서관은 이미 대부분 22시까지 운영되므로 단순한 운영시간 연장은 실효성이 낮음. 따라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각 도서관이 지역 특화 주제를 설정하고, 폐관 후 또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연·전시·강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를 통해 구립도서관이 단순 열람 공간을 넘어 지식과 문화가 만나는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음

○ 도서관 운영위원회 권한 강화

- 현재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자문적 기능에 그치고 있음. 「영등포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프로그램 기획·심의권을 부여하고, 위원 구성에 청소년·다문화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겠음. 이를 통해 주민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실제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겠음

○ 청소년·청년 자치활동 지원

- 뉴욕공립도서관의 Teen Center와 Teen Ambassador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청소년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매거진 제작, 전용공간 설치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청소년이 도서관에서 주체적 학습·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음

○ 연구자·작가 지원 펠로우십 제도 도입

- 뉴욕공립도서관의 Coleman Fellowship 모델을 참고하여, 제도를 신설하겠음. 지역 연구자·작가·청년학자에게 자료 접근, 연구 공간, 소규모 창작 지원금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구민과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지식·문화 자산 축적에 기여하겠음
- 특히 영등포 지역사, 도시문화, 생활사 등 우리 지역을 주제로 한 연구·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는 영등포구 지역특화형 ‘영등포 펠로우십’ 제도를 도입해 나가겠음. 이를 통해 구립도서관이 단순한 열람 공간을 넘어

연구·창작의 산실이자 지역 지식과 문화자산을 확산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 뉴욕공립도서관의 Tech Center 사례를 반영하여 「영등포구립도서관 조례」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조항을 신설하겠음. 전자책·데이터베이스 구독, 무료 코딩 및 디지털 교육, 노인·장애인·이주민 대상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음.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소외 없는 학습 환경을 보장하겠음

○ 기부·후원 활성화 제도화

- 뉴욕공립도서관은 기부와 후원이 중요한 재원임. 영등포구립도서관 「후원금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기부금·물품 관리 절차와 기부자 예우 근거를 명확히 하겠음. 특히 특정 프로그램(청소년 창작활동, 다문화 서비스 등)에 기부금이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민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음

○ 다문화·외국인 주민 서비스 강화

- 영등포구는 대림동 등 다문화 밀집지역을 보유하고 있음. 「영등포구립도서관 조례」에 다문화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여 다언어 자료 확충, 외국인 자원봉사자 참여, 통역·번역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겠음.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도 도서관을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음

□ 현장 사진



<뉴욕 공립도서관 관계자 설명>



<뉴욕 공립도서관 관계자 간담회>



<뉴욕 공립도서관 관계자 간담회 및 단체사진>

5. 한미경찰자문위원회

[뉴 욕]

□ 개 요

- 방 문 일: 2025. 9. 4.(목)
- 방문 장소: 219-01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 방문 목적
 - 다문화 도시 내 민·관·경 협력체계 운영사례 조사
 - 이민자 대상 안전 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책 확인
 - 다문화 사회 내 사회통합 및 치안거버넌스 구축 방향 도출

□ 현장질문 및 답변

Q1. 다문화 가족을 위한 위원회 결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1. (한인 자문위원)

다문화 가족 위원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성 과정에서 특정 국적이나 집단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통역 지원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구청·학교 등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Q2. 경찰 교육과 한국어 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A2. (한인 자문위원)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는 사회에서 치안 문제는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과 직결됩니다. 경찰 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정이 겪는 차별,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한국어 교육은 이들이 제도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뉴욕에서는 경찰·학교·비영리단체가 협력하여 대기시간 단축, 이탈률 감소, 연계율 향상이라는 성과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Q3. 뉴욕주와 영등포구가 자매결연을 한다면 어떤 교류 방안이 있을까요?

A3. (한인 자문위원)

뉴욕주는 다양한 인종·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의 선진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뉴욕주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치안협력: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CCTV 관리, 자율방범대 운영
 방식 공유

복지 서비스: 원스톱 통합복지 서비스 모델 벤치마킹

교육 교류: 경찰 아카데미·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연계

문화 교류: 다문화 축제, 전통문화 상호 교류 등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영등포는 보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치안·복지·교육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Q4. 미주 한인 경찰 자문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4. (한인 자문위원)

미주 한인 경찰 자문회는 한인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한인 사회 내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활동, 순찰,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커뮤니티 치안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의 협력 경험을 토대로 범죄 대응 매뉴얼 제작, 청소년 대상 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Q5. 미국의 한미 검찰 자문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A5. (한인 자문위원)

2017년 창립된 미주 한미 검찰 자문회는 경찰·검찰 등 법 집행기관과 한인 커뮤니티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청소년을 위한 여름 인턴십, 탐험 프로그램, 세미나를 운영하며, 2세·3세 한인 청년들이 법 집행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관·경찰국 등과 협력하여 커뮤니티 내 법 집행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Q6. 한인 사회의 범죄 예방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6. (한인 자문위원)

한인 사회는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순찰 활동, 청소년 범죄 예방 세미나, 경찰 시험 합격자 장학금 지원, 직무 대응 매뉴얼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인 사회 보호를 넘어서 지역 사회 전체의 치안 안정과 공동체 신뢰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Q7. 미국과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7. (한인 자문위원)

미국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공공적으로 개인 신상을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경찰·행정기관의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향후 한국도 점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Q8. 미국의 주와 도시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8. (한인 자문위원)

미국은 50개 주가 각각 독립적인 하나의 나라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5개 구(Boroughs)로 이루어져 있으며, 뉴욕주에는 21개의 카운티가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약 70명의 경찰서장이 활동하고 있고, 뉴저지주 역시 21개의 카운티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시·도 체계와 유사하면서도 훨씬 자치권이 강합니다.

□ 시사점 및 영등포구의회 차원의 실천 계획·구정 활용방안

○ 민·관·경 협력체계의 제도화 필요

- 미주 한인 경찰자문위원회의 사례는 경찰·검찰·보안관 등 법 집행 기관과 커뮤니티 간 협력의 제도화와 정기적 교류·교육·세미나 운영을 통한 신뢰 구축의 성과 제시
- 영등포구의 경우 다문화 자율방범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활동비와 피복비 지원에 국한됨에 따른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의 한계 존재. 따라서 공식 위원회 설치와 조례 제정을 통한 협력 구조의 제도화 필요

○ 범죄 예방 교육과 정보 공유 강화

- 미주 한인 경찰자문위원회의 범죄 예방 세미나, 증오범죄 대응 매뉴얼 제작, 청소년 장학사업 운영은 예방적 안전망 구축의 실현
- 영등포구의 경우 다문화 밀집지역 특성에 맞춘 범죄 예방 교육, 다국어 치안 매뉴얼 제작, 주민 대상 정기 교육 및 캠페인 운영을 통한 범죄 예방 강화 필요
- 사전 예방 중심의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필요

○ 청소년 지원 및 다문화 2세대 연계 전략

- 미주 한인 경찰자문위원회의 청소년 장학금, 인턴십, 탐험 프로그램 운영은 2세대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 안전 리더 양성의 기반 마련
- 영등포구의 경우 외국인 자녀 밀집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멘토링,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문화 2세 사회 정착 지원 필요
- 청소년의 지역사회 안전 주체화와 사회통합 기반 마련 필요

○ 범죄 유형별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필요

- 미주 지역의 증오범죄, 마약범죄, 청소년 범죄 등 특수 범죄 대응 매뉴얼 제작·교육은 범죄 대응 전문성 강화의 사례
- 영등포구의 경우 절도, 폭행, 주거침입 등 생활범죄 발생률이 높은 특성 반영을 통한 맞춤형 범죄 대응 프로토콜 마련 필요
- 범죄 유형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경찰-주민 협력 강화 필요

○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구조 필요

- 미주 한인 경찰자문위원회의 기부·후원 기반 기금 조성은 장학사업·순찰활동 운영의 안정성 확보 사례
- 영등포구 다문화 자율방범대의 월 30만 원 수준 지원은 운영 안정성 한계 노출
- 국비·시비+민간 협력 재원을 결합한 복합 재정 구조 마련 필요

○ 사회 통합을 위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미주 한인 사회의 치안 활동은 이민자 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통합 기반 마련의 역할 수행

- 영등포구 역시 다문화 주민의 사회 정착을 위한 치안 활동과 복지·교육·문화 정책의 연계 필요
- 치안 협력체계 거점화를 통한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영등포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영등포구의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율방범대 지원을 넘어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갖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 영등포구는 다문화 자율방범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활동비와 피복비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민·관·경 협력체계 제도화와 정기적인 교육·세미나·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 필요성 제기됨. 또한 다문화 특성에 맞춘 범죄 예방 교육과 다국어 매뉴얼 제작, 정기적 캠페인 운영을 통한 예방 중심 치안 환경 조성 필요성 제기됨
- 외국인 청소년과 2세대는 지역사회 정착의 중요한 주체로서 범죄 예방 교육·멘토링·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안전 리더 성장 기반 마련 필요성 존재함. 아울러 영등포구의 생활범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주민-경찰 협력 강화 필요성 존재함
-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국비·시비와 민간 협력 재원을 결합한 복합 재정 구조 마련 필요성 제기됨. 이를 통한 안정적 활동과 장기적 사업 추진 가능성 확보됨. 나아가 치안 활동을 복지·교육·문화 정책과 연계하여 다문화 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과 사회 통합 기반 조성 필요성 존재함
- 따라서 영등포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과 다문화 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치안 모델 구축의 필수적 기반임

□ 현장 사진



<한민경찰위원회와 단체사진>



<영등포구 현황 및 소개>



<한미경찰위원회 대표 기관소개 및 간담회>

□ SNS 및 보도자료

謹 申
 장례식 및 하관식
 2025년 10월11일 토요일 오후 12시30분
 Cypress Lawn Tiffany Chaple
 1370 El Camino Real Colma California

뉴스 경제 문화 커뮤니티 포토·영상 English

영등포구 의회 대표단,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 방문

커뮤니티 | 입력 2025.09.04 22:52

오숙자 기자 sukjah.oh@gmail.com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총회장 정영열)는 지난 9월 4일, 본협회 사무실에서 영등포구 의회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 16명의 방문을 맞이했다.

관련링크 주소: <https://www.us-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2>

6. 버겐 패밀리센터

[뉴저지]

□ 개 요

- 방 문 일: 2025. 9. 9.(화)
- 방문 장소: 44 Armory St. Englewood, NJ 07631
- 방문 목적
 - 아동 청소년 가족 노인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형 커뮤니티 복지 서비스 모델을 조사하고자 함.
 -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 다문화 한부모 저소득 등을 가진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정서 상담 서비스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자 함
 - 향후 우리 구의 청소년시설 복지관 주민센터 간 기능 연계 또는 복합화 시 참고할 수 있는 통합복지모델로 활용하고자 함

□ 현장질문 및 답변

Q1. 미국의 복지 서비스는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센터 담당자)

미국의 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민간 중심, 맞춤형 지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주도의 보편적 복지가 강조되지만, 미국은 개인·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문화·이민 사회의 특성을 반영해, 언어·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 및 지원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스톱 서비스 센터 운영을 통해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한 곳에서 통합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센터의 복지 서비스 재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A2. (센터 담당자)

재정은 정부 지원, 민간 기부, 개인 부담이 함께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예산 약 650만 불 중 120만 불(약 18%)은 개인과 민간 기업 후원금, 300만 불(약 46%)은 연방·주·지방정부 보조금, 나머지는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내거나, 보험·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제3자(Third Party) 지급 방식으로 충당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미국은 재정 압박을 분산할 수 있고, 복지 서비스가 단순히 '세금 의존적'이 아닌 사회 공동 책임 모델로 운영됩니다.

Q3. 미국의 기부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A3. (센터 담당자)

미국 사회는 태동기부터 기부를 사회적 의무이자 시민적 가치로 여겨 왔습니다. 복지기관과 비영리단체의 상당수가 개인·기업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을 강화합니다. 기부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정책 실험과 혁신 서비스 도입의 밑거름 역할을 합니다.

Q4. 복지 기관 운영 특징은 무엇인가요?

A4. (센터 담당자)

100년이 넘는 역사(예: 127년 전 설립된 기관)를 자랑하며, 전 세대를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의 핵심 미션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 돌봄이 아니라 자립과 역량 강화가 목표입니다. 운영 방식은 지역사회·학교·경찰·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서비스 연계율·이탈률·대기시간을 관리하는 체계적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Q5. 노인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5. (센터 담당자)

노인 대상 복지 프로그램이 다층적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의료보험 제도 때문에, 케어 개발 서포트가 노인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케어 개발 서포트는 단순 행정지원이 아니라, 노인과 가족 간의 관계 점검, 적절한 혜택 신청 안내, 지속적 모니터링까지 담당합니다.

Q6. 가족 문제 지원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A6. (센터 담당자)

패밀리 콜트 서비스는 가정 내 갈등이나 의료·심리 문제를 조정하는 대표적 제도입니다. 예컨대 질환이나 가족 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카운슬링을 통해 치료 방법, 필요한 자원, 법적·의료적 지원을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상담을 넘어 제3의 기관과 연계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Q7. 교육 서비스는 어떤 점이 독특한가요?

A7. (센터 담당자)

재정 능력에 따라 교육비가 달라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교육의 불평등 문제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다문화 사회 특성을 반영해 교사들은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합니다. 학생 평가는 전국 단위 시험(Test Score)로 이루어지며, 성적 저하는 단순 학업 능력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가정 돌봄 부재, 영양부족, 정서적 문제 등과 연계되어 분석됩니다. 미국 교육은 안전(Safety), 존중(Respect), 준법(Compliance)을 어린 시절부터 강조하며, 이는 인성·시민 교육의 뿌리가 됩니다.

Q8. 미국 학교와 지역사회는 어떻게 협력하나요?

A8. (센터 담당자)

미국 학교에는 상담사(Consular)가 상주해 학생들의 정서·학업·가정 문제를 지원합니다. 뉴저지와 같은 지역은 전통적으로 학교와 지역기관 간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해, 복지 서비스가 학교 현장과 연결되도록 합니다. 한국의 지역아동센터·마을하우스 개념과 유사하나, 미국은 제도적으로 학교와 복지기관 간 협력이 훨씬 긴밀합니다.

□ 시사점 및 영등포구의회 차원의 실천 계획·구정 활용방안

○ 민간 기부 및 자원 활용

- 미국은 예산 구조에서 정부 재원뿐 아니라, 개인 기부·기업 후원·재단 지원 등이 복지 서비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한국 지자체 복지사업은 공공재정 의존도가 높아 재정적 불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영등포구는 지역 기반의 기부문화 활성화 캠페인, 기업 CSR(사회공헌) 연계 프로그램, 후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재원 다변화를 모색해야 함.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복지재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다문화 대응 역량 강화

- 미국은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교사와 공공 인력이 문화적 다양성 교육을 정규적으로 받고 있음. 한국 사회도 다문화 가정 증가,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대응이 필수화 되고 있음. 영등포구 차원에서 공공 인력(복지사, 교사, 행정 담당자)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교육, 언어·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지역사회 내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 미국의 케어 개발 서포트는 노인·취약계층의 복잡한 의료·복지 혜택 신청을 돕고, 가족과의 연계를 관리하는 서비스임. 패밀리 콜트 서비스는 가정 내 문제(가정폭력, 아동학대, 의료 접근성 문제 등)를 조정하고 상담·법률·의료·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함. 이는 한국의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중간지원조직형 조정·연계 서비스 모델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함. 영등포구는 복지재단을 통해 서비스 수요자의 상황에 맞춘 '개별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성과 지표 관리

- 미국 기관들은 서비스 연계율, 대기시간, 서비스 이탈률 등 정량화된 성과 지표를 기반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한국은 여전히 단순 실적(사업 건수, 예산 집행율) 중심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주민 체감도나 서비스 질 관리가 부족한 실정임. 영등포구 복지재단은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 접근성(대기시간 단축), 서비스 효과성(연계율·해결률), 이용자 만족도(만족도 조사), 지역사회 파급효과(재참여율·자원봉사 참여율) 등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 운영

- 미국 기관의 강점은 유아·아동·청소년·성인·노인 등 모든 세대를 포괄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임. 한국은 보통 대상별·연령별로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존재함
영등포구 복지재단은 '원스톱 복지 플랫폼'을 지향하여, 한 기관 내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 가족 돌봄의 연계 강화

- 미국은 교육(유아·아동 교육, 부모 교육)과 가족 돌봄(부모 상담, 가족 치유 프로그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이는 단순히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을 함께 개선하여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임. 영등포구 복지재단도 ‘가족 기반 복지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여, 아동 프로그램을 부모 교육·상담·가정 지원과 연결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지역사회 중심 접근

- 미국은 복지 서비스가 지역 주민 생활권 안에서 제공되며, 필요 기반 접근을 중시함(예: 식품 지원, 학습 지원,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 지역사회 자원봉사 연결 등) 한국은 행정기관 주도의 공급 중심 구조가 여전히 강함. 영등포구 복지재단은 지역 자원(주민센터, 마을 공동체, 종교 단체, NGO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복지’를 강화해야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

- 현재 영등포구는 민간위탁 시설 44개 중 31개가 복지 관련 시설로,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나 대부분 공공재정 의존으로 재정적 불안정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또한 기부·후원 기반과 민간투자 자원의 미흡으로 복지 서비스 지속성과 확장성에 제약 발생. 아울러 다문화 가정 증가, 가족 해체, 노인·아동·청소년 등 복합적 복지 수요 확대에도 통합적·체계적 관리 기반 부족
- 이에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민간투자 및 후원 자원 확보, 민간위탁 관리 강화, 맞춤형 케어플랜 운영, 성과 관리 체계 도입, 다문화 대응력 강화, 원스톱 복지 서비스 구축 추진 필요

- 복지재단은 지역 기업 CSR, 사회적 투자, 재단·기관 협력 펀드, 개인 기부 등 민간 재원을 전담 유치 및 관리하고, 기부자 참여 기회 제공, 투명한 성과 보고, 명예 부여 등을 통한 참여 활성화 필요. 민간위탁 시설 통합 관리·평가를 통해 사업 중복 최소화, 자원 배분 효율화, 투명한 운영과 성과평가 기반 마련 필요. 민간위탁과 민간투자 연계를 통한 혁신적 복지 모델 발굴도 가능
- 이를 통해 안정적 자원 확보, 주민 체감도 제고,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복합적 수요 대응 등 영등포구 복지서비스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의 기반 마련 가능

□ 현장 사진



<버겐카운티 관계자들과 단체사진>



<버겐카운티 기관 소개 및 간담회>



<후원 업무 및 갈라쇼 관련 설명회>

□ SNS 및 보도자료



관련링크 주소: https://www.instagram.com/p/DOefrcREk1F/?igsh=OGduMZZoMnEwcGs3&img_index=2

1. 교육 및 문화사업 분야

□ 추진목표

- 영등포구 기념공간의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고, 교육·추모·외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합한 지속가능한 보훈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적 기억의 확산과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1)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방 문 일: 2025. 9. 5.(금)
- 방문장소: 1000 5th Ave, New York, NY 10028, USA
- 방문목적
 - 세계적 도심 미술관이 도시 정체성과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배우고자 함. 특히 뉴욕 시민들이 미술관을 일상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참여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 영등포구의 문화도시 정책, 63빌딩 풍피두센터 서울 분관 조성과의 연계해 도심 속 미술관 운영 모델을 참고하고자 함

2)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 방 문 일: 2025. 9. 5.(금)
- 방문장소: 10th St. & Constitution Ave. NW, Washington, DC 20560, USA
- 방문목적
 - 과학·역사·생태 분야를 통합적으로 전시·교육하는 모델을 학습하고자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과학 교육 프로그램 및 디지털 자료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여, 영등포구의 정원도시·생태정책, 과학문화 인프라 조성과의 연계하고자 하였음. 뿐만아니라, 단순 건축 개발이 아닌 교육·생태·과학 융합 공간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시사점 및 영등포구의회 차원의 실천 계획·구정 활용방안

- 영등포구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로 지정되었고 이 중 의장도시로 선출되었으나, 미술관·박물관 등 핵심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구민의 문화향유권과 지역 경쟁력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음. 이번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국립자연사박물관 방문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 활용에 있어 단순 상업·행정 개발이 아닌 ‘문화·과학 복합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문화 향유권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음.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박물관 사례를 접목하여, 여의도를 문화·교육·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63빌딩 톱피두센터 서울 분관 조성과 연계하여 의회 차원에서 교통·관광·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해외 사례처럼 민관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임
- 영등포구가 이미 추진 중인 정원도시·생태도시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자연사박물관 모델을 참고한 ‘생태·환경 교육관’ 또는 ‘도심 속 과학문화관’ 설립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수 있음. 이는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교육·체험형 콘텐츠 확산으로 이어져, 구민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임
- 공공성과 포용성 강화를 위해 뉴욕·워싱턴 사례처럼 무료 개방일이나 특화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차별 없이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음

- 이번 출장에서 확인한 선진 사례는 영등포구가 단순한 문화도시를 넘어, 문화·과학·생태 융합도시로 도약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의회는 이러한 활용방안을 구체적 입법·정책으로 발전시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접근성 확대, 교육 기회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야 할 것임

2. 정원·(수변)공원 분야

□ 추진목표

- 세계적 도시공원의 기획·조성·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영등포구가 추진 중인 정원도시·생태도시 정책에 접목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도심 속 녹지·수변 공간의 활용 방안과 주민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배우고, 향후 영등포구 생태 인프라 확충 및 정책 고도화에 참고하고자 함

1) 워싱턴 D.C. 국립식물원

- 방 문 일: 2025. 9. 7.(일)
- 방문장소: 100 Maryland Ave SW, Washington, DC 20001, USA
- 방문목적
 - 식물 전시·교육·보존이 결합된 운영모델을 확인하여 영등포구의 정원도시 정책과 연계한 ‘도심형 생태·교육 공간’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 방 문 일: 2025. 9. 5.(금)
- 방문장소: New York, NY 10024, USA
- 방문목적
 - 대도시 한가운데 조성된 대규모 공원의 지속적 유지·관리,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파악하고 영등포구의 도심 속 녹지 확충 및 공원 관리 정책에 적용하고자 함

3) 뉴욕 리틀아일랜드

- 방 문 일: 2025. 9. 10.(수)
- 방문장소: Pier 55 at Hudson River Park, W 13th St,
New York, NY 10014, USA
- 방문목적
 - 민관 협력 기반의 도시공원 조성·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영등포구가
향후 수변·한강변 및 공원 공간을 활용한 문화·생태 융합형 공공공간
조성에 적용하고자 함

□ 시사점 및 영등포구의회 차원의 실천 계획·구정 활용방안

- 영등포구는 샛강, 안양천, 한강 등 풍부한 수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시적 활용도와 주민 체감도는 아직 낮은 수준임. 이번 정원·공원 분야
방문을 통해 확인한 해외 사례는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국립식물원 사례를 접목하여 ‘도심 속 생태·환경 교육관’을 설립하는
등 정원도시 정책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센트럴파크의 대규모 녹지 운영 방식과 ‘공원은 시간의 산물’이라는 철학을
참고하고, 화려한 시설보다 자연 그 자체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중시하는
운영 원칙을 반영하여 영등포공원·여의도공원 등 주요 공원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임
- 리틀아일랜드 모델을 벤치마킹해 한강변·샛강변 수변 공간 또는 관내 공원
공간을 민관 협력형 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영등포구가 단순한 공원 확충을 넘어, 생태·문화·도시재생이 결합된 정원 도시 모델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 주민참여형 정책 설계 등을 추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실현해 나갈 것임

3. 보존 및 기념사업 분야

□ 추진목표

- 영등포구 기념공간의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고, 교육·추모·외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합한 지속가능한 보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적 기억의 확산과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1)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 방 문 일: 2025. 9. 6.(토)
- 방문장소: 520 Chestnut Street, Philadelphia, PA, USA
- 방문목적
 -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미국 헌정사의 발전과정 및 시민자치의 근간이 된 제도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 의회 운영에서 대표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 방안 모색

2) 자유의 종

- 방 문 일: 2025. 9. 6.(토)
- 방문장소: 526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USA
- 방문목적
 - 역사문화 자산의 도시 브랜드화 사례 연구와 공공기념물의 보존 및 활용 방식 학습을 통한 활용 방향 모색

3) 제퍼슨 기념관

- 방 문 일: 2025. 9. 10.(수)
- 방문장소: 900 Ohio Drive, S.W., National Mall, Washington, D.C., USA
- 방문목적
 -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의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기념하는 공공 기념시설의 역할과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 역사 기념공간이 시민 교육, 정체성 형성, 관광자원 등 다기능 공공공간으로 활용되는 방식을 조사하며, 역사·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영등포구 내 공간 조성 및 설계에 참고할 기념공간의 메시지 설계, 건축 언어, 해설 콘텐츠 구성 방식을 확인하고자 함

4) 링컨 기념관

- 방 문 일: 2025. 9. 7.(일)
- 방문장소: 2 Lincoln Memorial Circle, NW, Washington, D.C. 20037
- 방문목적
 -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인종 평등·시민권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통해 시민인권 교육, 정치참여 의식 고취, 공공리더십 학습을 도모하고, 설치·운영 방식 및 공공 공간과 기념 조성 전략을 참고하여 향후 관내 기념공간 조성 및 공공행사용 랜드마크 조성에 반영할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5) 911메모리얼파크

- 방 문 일: 2025. 9. 10.(수)
- 방문장소: 180 Greenwich Street, New York, NY 10007, USA
- 방문목적
 - 대규모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공공간 조성 방식과 피해자 유가족·생존자·시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 및 운영 구조, 추모와 관광의 균형을 고려한 운영 방식, 테러 이후 도시계획 및 공간 재배치 사례, 국가적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징공간의 역할 분석을 목적으로 함

6) 한국전 참전기념비

- 방 문 일: 2025. 9. 10.(수)
- 방문장소: 워싱턴 D.C., 내셔널 몰(National Mall), 링컨 기념관 남쪽
- 방문목적
 - 한국전쟁(1950~1953)에 대한 미국의 기억 방식과 추모 공간 운영 사례를 탐방하고, 연방정부·재향군인회·민간 단체 간 협력 사례를 분석하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공공공간 운영 전략과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동 기념행사·헌화식 등 유공자 추모 외교 사례를 학습하고, 해외 거점 보훈 기념시설의 외교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함

□ 시사점 및 영등포구의회 차원의 실천 계획·구정 활용방안

- 보훈정책과 기념공간 운영 방향의 핵심은 단순한 추모와 관리 차원을 넘어 공적 기억의 사회적 확산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있음. 제시된 추진 목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향점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됨
- 기념자산 보존관리 체계 확립과 운영·관리 표준화를 통해, 지역 내 보훈 관련 유적·기념공간을 ‘살아있는 기억의 장’으로 기능하게 할 필요성 강조됨. 체계적 보존 기준 마련과 장기적 예산 확보를 통해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의미를 동시에 유지·강화할 필요성 확인됨
- 포괄적·다층적 역사서사 구축과 시민교육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보훈의 기억을 민주화하고 세대 간 연대감을 형성할 필요성 제시됨. 다양한 역사 주체와 지역 주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가 요구됨
- 기념행사·추모의례의 제도화 및 다양화, 접근성·포용성 설계를 통해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 마련 필요성이 강조됨. 물리적·정보적 장벽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과 지역 공동체 신뢰 강화의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위기기억·재난추모 공간 설계 기준 도입과 유족·참전자 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치유와 회복을 지향할 필요성이 확인됨. 보훈사업과 정서적·심리적 지원체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 기록·아카이브 구축과 디지털화, 사회적 연대 강화형 자원 조달 모델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강조됨. 체계적 기록 보존과 온라인 전시·체험 제공을 통한 시민 접근성 확대, 정부 재정과 민간 후원 결합을 통한 장기적 추진력 확보가 필요함
- 국제협력 및 외교적 기념사업 활성화를 통해 영등포구 보훈사업의 외연 확대 가능성 확인됨. 참전 기념사업과 다자적 교류를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가 기대됨
- 성과지표 기반 관리체계 도입, 관광·추모 균형 설계, 지역사회 연계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 성과와 책임성 확보,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생활 속 공적 기억 정착이 요구됨
- 영등포구 보훈사업의 시사점은 단순한 과거 기념을 넘어 현재 시민 참여와 미래 세대 계승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기억 생태계 조성에 있음. 역사 보존, 시민교육, 사회통합, 자원조달, 국제교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4. 도시재생 분야

□ 추진목표

-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지역 활력 창출, 문화·관광 융합형 도시재생 전략 학습,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도입,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국제 교류 및 도시 브랜드 제고 방안 모색

1) 하이라인공원

- 방 문 일: 2025. 9. 10.(수)
- 방문장소: 미국 뉴욕 맨해튼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 방문목적
 - 하이라인공원 방문의 목적은 고가철도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를 직접 탐방하고, 기존에 폐기되거나 활용도가 낮았던 인프라를 문화·관광 자산으로 전환한 전략과 방식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함. 이를 통해 도시 내 선형 녹지 조성 및 생태계 회복 사례를 확인하고, 공공공간에서 설치미술과 전시 등 시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례를 수집함으로써, 영등포구의 유휴공간 재생 및 공공문화공간 조성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리틀아일랜드

- 방 문 일: 2025. 9. 10.(수)
- 방문장소: 미국 뉴욕 맨해튼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 방문목적
 - 리틀아일랜드 방문의 목적은 허드슨강의 옛 부두를 재활용하여 조성된 수변 공공공간 사례를 조사하고, 도시 내 유휴 공간을 문화와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한 성공 모델을 분석하기 위함

또한, 민간 자본과 뉴욕시 행정의 협업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조를 검토함으로써 영등포구 내 도시재생 및 공공공간 조성 시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과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시사점 및 영등포구의회 차원의 실천 계획·구정 활용방안

- 하이라인공원이 폐철도를 리틀아일랜드가 강 위의 공간을 재활용한 것처럼 영등포구 역시 산업화 시기에 형성된 철도 부지, 노후 공장지대, 하천변 공간 등 활용도가 떨어진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재생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새로운 도시 자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낙후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중요함
- 뉴욕의 두 사례는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공연, 전시, 관광, 커뮤니티 활동을 수용하는 복합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도시재생이 단순히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자원 창출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줌. 영등포구도 문화예술 인프라와 지역 상권, 관광자원을 연계해 도시재생 공간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함,
- 특히 젊은 예술가와 청년 창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창작·체험 공간을 마련해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이 필요함
- 하이라인공원은 시민운동과 민관 협력의 산물이며, 리틀아일랜드 또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한 프로젝트임. 이는 도시재생이 행정 주도뿐만 아니라 추진되어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 영등포구는 도시재생 과정 전반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기획·운영·관리 단계에서 지속적인 주민 참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주민 워크숍, 공모사업, 운영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이 ‘소비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운영자’로 참여할 때 도시재생의 지속성이 담보됨
- 리틀아일랜드의 튜립형 기둥, 하이라인의 선형 산책로처럼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공간 디자인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 매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임. 영등포구 도시재생도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반영해야 함. 녹지 네트워크 확충, 재생에너지 활용, 빗물 재활용, 친환경 건축자재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뉴욕의 도시재생 사례가 세계 각국 도시의 벤치마킹 모델이 된 것처럼 영등포구의 도시재생도 국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상징성과 차별성을 확보해야 함. 이를 위해 글로벌 도시재생 성공 사례와의 교류, 국제 학술행사·포럼 개최, 해외 도시와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영등포의 도시재생 모델을 국제적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음. 동시에 지역 주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영등포형 도시재생’을 하나의 브랜드로 정착시켜야 함
- 영등포구 도시재생의 방향은 유희공간의 창의적 활용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관광 융합, 주민 참여, 지속가능한 디자인, 도시 브랜드 제고 및 국제교류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으로 요약됨. 이는 단순히 낙후 공간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나아가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까지 전인할 수 있는 전략적 과제임

5. 기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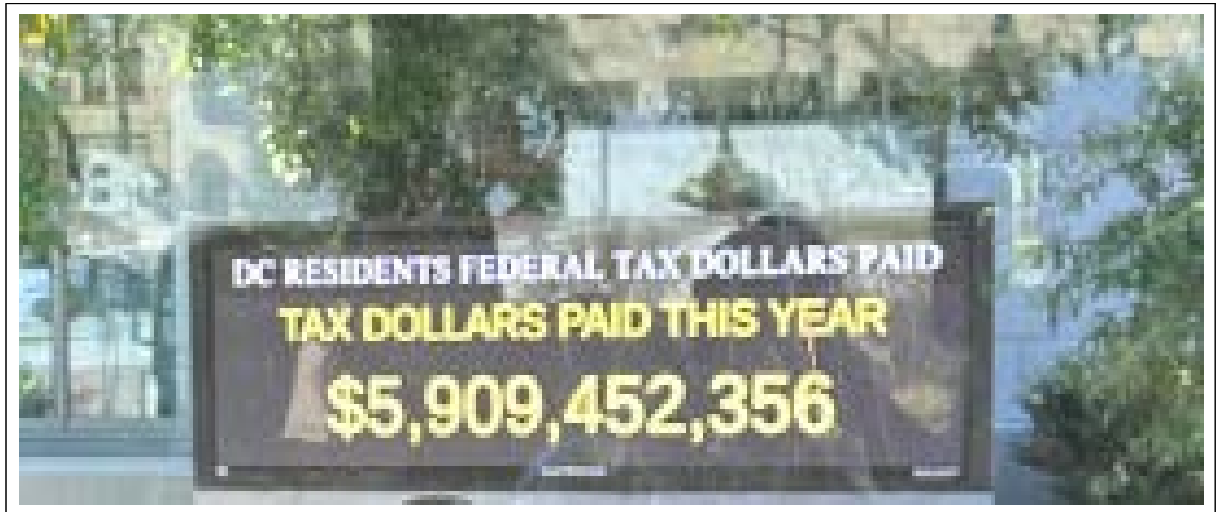
○ 교통·안전 정책 측면

- 워싱턴 D.C.의 경우 자전거 도로를 도로 중앙에 설치하고 전용 신호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었음. 자전거가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동선이 분리되어 있어, 자전거가 하나의 독립적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뉴욕의 공공자전거 'Citi Bike' 시스템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고 결제·반납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의 분리 설계, 전용 신호 운영, 양방향 주행체계 등은 자전거 중심 교통정책의 성숙한 형태를 보여주었음
- 우리 구 역시 향후 생활도로 개선 및 교통정책 수립 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정 운영의 투명성

- 워싱턴 D.C. 의회 청사 앞 전광판에는 매년 주민 세금 수입과 집행 내역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음. 이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 정부가 주민 세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장치임
- 영등포구도 세입·세출 현황을 시각적으로 쉽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역사 보존과 기억

- 뉴욕과 워싱턴D.C.는 도시 곳곳의 역사적 장소를 보존하고 기념하는 방식을 통해 시간성·관계성·서사성을 담아내고 있음. 단순 표식이 아니라, 인물·사건 간의 관계를 반영한 배치와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설계가 유의미함

- 반면 우리 영등포구는 영등포역 광장에 위치한 3.1운동 만세터 표식을 비롯해 여러 역사적 공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점에서 대대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함
- 최근 영등포구의회도 제26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 이 문제를 재확인한 바 있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역사적 공간의 가시성을 높이고, 교육·홍보를 결합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도시 정체성과 포용 가치

- 워싱턴 D.C.에서 확인한 모토 “E pluribus unum(여럿으로부터 하나)”는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다문화·이주민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음

- 앞으로 우리 의회는 정책과 의정 운영 전반에 포용의 가치를 반영하여 다양한 주민이 존중받고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VI 입법 · 정책 추진계획

1. 의회 운영 분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의안”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자치단체의 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 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거나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 소관부서와 의회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 부처(이하 “관련 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류 및 처리)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반드시 관련 부처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진행되는 회의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소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종이 없는 회의”란 회의 자료의 인쇄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자료를 배포하고 열람하는 회의를 말한다.
2. “디지털 기술”이란 회의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일련의 기술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친환경 가치 확산 등을 위하여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의 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의장은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의장은 종이 없는 회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3. 그 밖에 의장이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결의안

기후위기는 전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심각한 도전과제로서, 폭염·폭우·미세먼지 등 기후재난은 이미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UN 본부는 기후위기를 인류 공동과제로 규정하며, 국제사회는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또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녹색생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응 속도를 고려할 때,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넘어 의회 차원의 선도적 의지 표명과 새로운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서울 노원구는 「탄소중립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탄소중립도시과·녹색환경과·자원순환과」 등을 두어 기후위기 대응을 행정 전반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조직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영등포구 또한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전담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영등포구의회는 UN 본부 방문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역 차원에서 실천으로 이어가고,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영등포구의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견인하고, 의정활동 전반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점을 반영한다.

하나. 영등포구의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지역 성과 보고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매년 구민에게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공개·점검하도록 한다.

하나. 영등포구의회는 기후위기 취약계층(노인, 아동, 에너지 빈곤층)과 지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지원하며, 구청과 협력한다.

하나. 영등포구의회는 주민·청년·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구민 참여형 녹색생활 운동 확산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영등포구의회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영등포형 탄소중립 프로젝트(녹지축 확충, 친환경 축제, 에너지 절감형 도시공간 조성)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영등포구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행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의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전담 부서 설치 등 적극적인 조직적 대응을 촉구한다.

하나. 영등포구의회는 중앙정부·서울시와 협력하고, UN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흐름에 발맞추어 지역-국가-세계 연계의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앞장선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복지 및 에너지빈곤 완화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⑥ 구청장은 정의로운 전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며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는 탄소중립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 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④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회 추천 의원

3. 기후과학、감축、적응、에너지、자원、녹색산업、정의로운 전환 등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임시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천재지변 등 긴급 시 또는 안전이 경미한 경우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2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저탄소 사무실 조성)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구와 공단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저탄소 건물 및 사무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업무에서의 관행적인 종이사용 및 종이 구입, 인쇄 관련 비용 등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 등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의3(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구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④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구청장은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복지 및 에너지빈곤 완화 정책을 수립·추진한다.</u> <u>⑥ 구청장은 정의로운 전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u>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u>하며 이를 제9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 ----- ----- 한다. <u>② 구는 탄소중립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 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u>

<신 설>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의 수립 · 시행 등)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하거
나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
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
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의 수립 · 시행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
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 간 협력

4. ~ 6. (생략)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제11조(추진상황 점검) (생략)

<신설>

<신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위원회를 둔다.

1. ~ 6. (생략)

7. ~ 9.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
지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
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
른 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조(추진상황 점검)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
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
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점검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생 략)

②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생 략)

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신 설>

7.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25명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의회 추천 의원

3. 기후과학 · 감축 · 적응 · 에너지
· 자원 · 녹색산업 · 정의로운 전
환 등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
람

4.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
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
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
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제14조(운영)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생략)

<신설>

<신설>

<신설>

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임시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천재지변 등 긴급 시 또는 안전이 경미한 경우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2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2(저탄소 사무실 조성)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구와 공단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저탄소 건물 및 사무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생 략)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업무에서의 관행적인 종이사용 및 종이 구입, 인쇄 관련 비용 등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 등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의3(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구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교육재난”이란 재난으로 인해 학교시설의 파손, 학사운영의 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말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는 재난 후 일상으로의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해 교육재난 상황에서 서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주민의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교육재난 시 학습권 보장) ① 구청장은 교육재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 학습공간 설치, 교육 기자재 지원, 원격교육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장애학생, 다문화·이주배경 아동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9조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설></u>	11. “교육재난”이란 재난으로 인해 <u>학교시설의 파손, 학사운영의 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말한다.</u>
11. (생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3조(구의 책무) ① (생략)	제3조(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u>구는 재난 후 일상으로의 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해 교육재난 상황에서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주민의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 ④ (생략)

<신설>

제49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40조의2(교육재난 시 학습권 보장)

① 구청장은 교육재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 학습공간 설치, 교육기자재 지원, 원격교육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장애학생, 다문화·이주배경 아동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9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위원회 간 합의조정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의회에서 처리하는 안건 중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교차 발의된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위원회 위원 각 2명씩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간 합의조정 특별위원회」(이하 "합의조정특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합의조정특별위원회는 안건의 사전 심사, 의견 조율 및 대안 마련 등 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는 본회의 보고 및 관련 위원회 의결에 반영한다.

③ 합의조정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활동 기간 및 보고 등 세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④ 합의조정특별위원회는 설치 목적 달성 후 해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1조의2(위원회 간 합의조정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의회에서 처리하는 안건 중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교차 발의된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위원회 위원 각 2명씩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간 합의조정 특별위원회」(이하 "합의조정특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u> <u>② 합의조정특별위원회는 안건의 사전 심사, 의견 조율 및 대안 마련 등 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는 본회의 보고 및 관련 위원회 의결에 반영한다.</u> <u>③ 합의조정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활동 기간 및 보고 등 세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u> <u>④ 합의조정특별위원회는 설치 목적 달성 후 해산한다.</u>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사항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구정에 반영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사항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구정에 반영해야 한다.</u>

2. 교육 분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문화·다언어 서비스 및 외국인 주민 지원

제12조제3항 본문 중 “인사”를 “인사, 도서관 이용자, 청소년·다문화 대표”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장은 학술연구·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연구전용열람석·소그룹 연구실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연구자·교육기관과의 프로젝트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문화·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비영리 공익 프로그램은 전액 감면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도서관 협력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복지, 보건, 고용 등 공공서비스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협력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중 “지역문화”를 “전시、학교연계 견학、체험학습 프로그램(초、중、고 대상)과 지역문화”로 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후원、기부) ① 도서관의 자료、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기부금품의 접수、관리、사용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른다.

② 관장은 기부자 예우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4조(기능) ----- -----. 1. ~ 5. (현행과 같음) <u>6. 다문화·다언어 서비스 및 외국인 주민 지원</u>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 <u>인사</u> 및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대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 ⑥ (생략)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인사, 도서관 이용자, 청소년·다문화 대표</u> ----- ----- -----. ----- ----- -----.
제14조(회의 및 수당) ①·② (생략) <u><신설></u>	제14조(회의 및 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u> <u>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u>
③·④ (생략)	

제1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18조(사용료 등 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신설>

2. (생략)

<신설>

음)

제1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장은 학술연구·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연구전용열람석·소그룹 연구실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연구자·교육기관과의 프로젝트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등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다문화·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비영리 공익 프로그램은 전액 감면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27조의2(도서관 협력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복지, 보건, 고용 등 공공서비스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제28조(문화강좌 개설 등)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제공 및 <u>지역문화</u> 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 개설 등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u><신 설></u> <u>제29조 (생 략)</u>	<u>작은도서관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협력에도 노력하여야 한다.</u> 제28조(문화강좌 개설 등) ----- ----- - <u>전시·학교연계 견학·체험학습 프로그램(초·중·고 대상)과 지역 문화</u> ----- --. 제29조(후원·기부) ① <u>도서관의 자료·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기부금품의 접수·관리·사용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른다.</u> <u>② 관장은 기부자 예우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u> <u>제30조 (현행 제29조와 같음)</u>
---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전자도서, 온라인 학습자료, 디지털 기기 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자료·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기업·단체·개인의 기부와 후원을 장려하며, 필요시 후원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협력사업)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복합적 생활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보건, 고용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센터, 학교, 평생학습관 등과 연계하여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도서관화 향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야간·주말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구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구청장은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전자도서, 온라인 학습자료, 디지털 기기 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u>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5조(기능) ----- -----. 1. ~ 5. (현행과 같음) <u>6.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자료·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u> <u>7.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u>
6. (생략) 제6조(지원) ① (생략) <u><신 설></u>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6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u>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기업·단체·개인의 기부와 후원을 장려하며, 필요시 후원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u>
<u>②·③</u> (생략) <u><신 설></u>	<u>③·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u>제6조의2(협력사업)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복합적</u>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0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② (생략) <u><신설></u> 제16조(실태조사) ①·② (생략) <u><신설></u>	<u>생활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보건, 고용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②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센터, 학교, 평생학습관 등과 연계하여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u>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u> 제10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구청장은 주민의 도서관화 향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야간·주말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u> 제16조(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u>
---	--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확립하고 영등포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등포학’이란 조선시대, 개화기, 대한민국 건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동적인 시기에 영등포구 사람들의 각종 발자취를 연구해 그 수용(受容)과 혁신(革新)의 정신을 오늘에 잇고 자연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등포다움을 연구하는 지역학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학 연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영등포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등포학 연구 및 활성화
2. 영등포학 연구 기록화 및 관련 도서 등 발간
3. 영등포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영등포학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5. 영등포학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협력사업
6. 영등포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영등포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영등포학을 연구하고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학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등포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공동연구 수행, 자문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 또는 제7조에 따라 협력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육성·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연구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자치행정 분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 중 외국인등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안봉사단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경비(이하 “물품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
2. 방범활동 중인 단원의 야식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치안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등

② 물품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치안봉사단은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치안봉사단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한 물품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에 지원한 물품등의 사용 또는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 감독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산) 제3조에 따라 물품등을 지원받은 치안봉사단은 실적 및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물품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지원한 물품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4. 복지 분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영등포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등포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영등포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복지시설 간 교류·협력 지원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6. 사회복지분야의 교육과 컨설팅에 관한 사업
7.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

8.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생활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업

9. 영등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업 등

10.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 및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④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출연금 등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④ 재단 최초의 임원 선출은 구가 공개모집을 수행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구청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VII 출장경비 집행내역

(단위:원)

연번	구 분		집 행 액
1	의원국외여비	의원 여비	56,985,360
2	국외업무여비	직원 여비	20,916,480
3		직원취소수수료(항공권)	500,000
4		직원취소수수료(비자발급비)	58,800
소 계			78,460,640
5	사무관리비	통역비	2,181,949
6		기관섭외비	3,526,419
7		물품구입(기념품)	400,000
소 계			6,108,368
8	의정운영공통경비	가이드비	4,115,966
9		입장료	2,449,278
10		차량임차료(해외)	20,421,308
11		차량임차료(국내)	990,000
소 계			27,976,552
총 계			112,545,560

□ 출장경비 증감내역

(단위:원)

구 분	출장 전	출장 후	비교증감
합 계	32,351,600	33,253,720	902,120
③직원취소수수료(항공권)		500,000	500,000
④직원취소수수료(비자발급비)		58,800	58,800
⑤통역비	2,115,000	2,181,949	66,949
⑥기관섭외비	3,442,500	3,526,419	83,919
⑧가이드비	4,027,100	4,115,966	88,866
⑨입장료	2,574,800	2,449,278	-125,522
⑩차량임차료(해외)	20,192,200	20,421,308	229,108

①~②, ⑦, ⑪ 의원 및 직원여비, 물품구입(기념품), 차량임차료(국내): 변동 없음

③~④ 직원취소수수료(항공권 및 비자발급비): 558,800원 추가 지출

※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의결[2025.8.19.(화)]

⑤~⑥, ⑧~⑨ 통역비, 기관섭외비, 가이드비, 입장료: 114,212원 추가 지출

- 외화송금 과정 중 송금수수료 및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 출장직원 2명 감소에 따른 입장료 감액

⑩ 차량임차료(해외): 환율변동에 따라 229,108원 추가 지출

[붙임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선진 국가의 의회, 운영, 주요 정책 운영 실태 등 우수한 정책과 제도를 학습하고 우리구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내용	미국 동부는 지방자치, 고령화 대응, 교육 정책 등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현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모델 마련						
출장기간	2025. 9. 4.(목) ~ 9. 12.(금) / (6박9일)						
출 장 국	미국(뉴욕, 워싱턴D.C) / 환율: 1\$=1,392원(2025.7.18.기준)						
출 장 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계		22명			금 액(원)	부담기관
	영등포구의회	의장	정선희	여	66	4,075,420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유승용	남	75	4,104,820	
		운영위원장	이규선	남	62	3,486,080	
		행정위원장	양송이	여	49	3,486,080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영	여	50	3,486,080	
		의원	최봉희	여	60	3,486,080	
		의원	김지연	여	40	3,486,080	
		의원	남완현	남	57	3,486,080	
		의원	전승관	남	33	3,486,080	
		의원	이순우	여	63	3,486,080	
		의원	임현호	남	53	3,486,080	
		의원	박현우	남	43	3,486,080	
		의원	신흥식	남	75	3,486,080	
		의원	이성수	남	64	3,486,080	
		의원	우경란	여	67	3,486,080	
		의원	최인순	여	55	3,486,080	
		의정팀장	수행1	남	48	3,486,080	
		주무관	수행2	남	42	3,486,080	
		주무관	수행3	여	32	3,486,080	
		주무관	수행4	남	37	3,486,080	
		주무관	수행5	여	32	3,486,080	
		주무관	수행6	남	51	3,486,080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비고
9. 4 (목)	인천	뉴욕		○ 출발 인천공항(10:00) ▶날짜 변경선 통과◀ 도착 뉴욕JFK공항(11:00)	
	뉴욕	뉴욕	Dorot 노인복지기관	○ 어르신 복지 정책 간담회 (16:00) (복지 또는 환경관련 기관 변경 가능)	공식방문
9. 5 (금)	뉴욕	뉴욕	UN본부	○ UN본부 방문 및 관계자 미팅 (10:30)	공식방문
	뉴욕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선진 미술관 시스템 견학 (13:00)	
9. 6 (토)	뉴욕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시청 독립기념관 자유의 종	○ 기념사업 활용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10:00)	
	워싱턴DC	워싱턴DC	국회의사당	○ 국회의사당 방문 (15:20)	공식방문
9. 7 (일)	워싱턴DC	워싱턴DC	스미소니언박물관	○ 선진 박물관 견학으로 향후 관내 박물관 건립시 참고자료 활용 (10:00)	
	워싱턴DC	워싱턴DC	국립식물원	○ 선진 식물원 견학 및 벤치마킹 (13:30)	
	워싱턴DC	워싱턴DC	제퍼슨기념관 링컨기념관 한국전참전기념비	○ 기념사업 활용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14:30)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비고
9. 8 (월)	워싱턴D.C	워싱턴D.C	워싱턴D.C의회	○ 워싱턴D.C의회 방문 및 간담회 (10:00)	공식방문
	워싱턴D.C	뉴욕		○ 이동(워싱턴D.C→뉴욕) (13:00~18:00)	
9. 9 (화)	뉴욕	뉴저지	버겐패밀리센터	○ 선진 문화 시설 방문 및 간담회 (10:00)	공식방문
9. 10 (수)	뉴욕	뉴욕	뉴욕공립도서관	○ 선진 도서관 시스템 견학 및 간담회 (10:15)	공식방문
	뉴욕	뉴욕	911메모리얼파크 하이라인공원 리틀아일랜드	○ 기념사업, 도시재정비 분야 견학 및 벤치마킹 (14:00)	
9. 11 (목)	뉴욕			○ 뉴욕 공항 출발 (00:50)	
9. 12 (금)		인천		○ 인천 공항 도착 (06:10)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구분	직위	성명	담당기관	업무내용
1	의회운영 분야	의장	정선희	[공식] 워싱턴D.C.의회	인사말 및 협력 의사 전달 공무국외출장 운영 총괄
2		부의장	유승용		현재 주요 이슈 조사
3		운영위원장	이규선	[공식] UN본부	지역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국제정책 사례 수집
4		운영 부위원장	김지연	[공식] 국회의사당	청문회·공청회 운영 방식, 공개 회의 문화 조사
5	행정위원회 (교육·문화· 기념사업)	행정위원장	양송이	[공식] 뉴욕공립도서관	프로그램 구성, 시민접근성 조사 우리구 도서관 접목 방안 연구
6		의원	신홍식		예산, 조직구조, 운영방법 등 조사
7		행정 부위원장	박현우	[공식] 버겐 패밀리 센터	프로그램 구성 조사, 지역 맞춤형 교육 문화정책 개발 방향 도출
8		의원	우경란		예산, 조직구조, 운영방법 등 조사
9		의원	임헌호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벤치마킹 예산, 조직구조, 운영방법 등 조사
10		의원	최봉희	국립식물원,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등	문화 도시 정체성 강화 전략 도출 시민 접근성 강화방안 도출
11	사회건설위원회 (복지·보훈· 도시재생)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영	[공식] Dorot 노인복지기관 (복지 또는 친환경시설 변경 가능)	우리구 복지기관과 비교 분석
12		의원	남완현		우리구 서비스 개선 방안 도출 예산, 조직구조, 운영방법 등 조사
13		의원	이성수	한국전 참전 기념비 911메모리얼파크	타 도시의 유사한 추모공간 운영 사례 비교분석
14		의원	이순우		추모 및 시민의식 제고 사례 정리
15		의원	전승관	허드슨 야드 개발지구 하이라인공원 리틀아일랜드	도시개발의 방향성, 구민 참여방안 연구
16		의원	최인순		개발 프로젝트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시설 개발 시 갈등 사례 연구
17	직원	의정팀장	수행1	공무국외출장 업무수행 총괄 보좌	
18		주무관	수행2	방문기관 의전 및 일정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19		주무관	수행3	운영위원회 소관 정책 및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 자료조사	
20		주무관	수행4	행정위원회 소관 정책 및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 자료조사	
21		주무관	수행5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정책 및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 자료조사	
22		주무관	수행6	방문기관 의전 및 홍보자료 수집, 사진촬영	

3. 출장경비

[단위: 원 / 환율: 1\$=1,392원(2025.7.18.기준)]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77,901,840	4,196,880	17,870,400	28,229,760	26,217,400	1,387,400	
정선희	4,075,420	219,240	1,042,600	1,586,880	1,191,700	35,000	
유승용	4,104,820	219,240	1,042,600	1,586,880	1,191,700	64,400	
이규선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양송이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차인영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최봉희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김지연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남완현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전승관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이순우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임현호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박현우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신희식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이성수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우경란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최인순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수행1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수행2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수행3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수행4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수행5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수행6	3,486,080	187,920	789,260	1,252,800	1,191,700	64,400	

4. 출장 효과

분야	방문지	출장 효과
의회 운영 분야	UN본부 국회의사당 워싱턴D.C의회	· 미국 의회의 운영을 체험하며 의정활동, 시민참여 등 비교연구 · 회의운영, 주민참여제도, 의회시설 등 파악 · 협력과 갈등 조정의 실제 구조 파악
행정위원회 (교육문화 분야)	뉴욕공립도서관 베건패밀리센터	· 지역사회에서의 우리구 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파악 도구로 활용 ·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다양화, 커뮤니티 공간의 시민참여 기반 운영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 공공예술을 통한 도시 브랜딩 전략 · 도시 속 공공공간 설계 · 자연친화적 도시정책을 우리구에 접목
	국립식물원 독립기념관 자유의 종 제퍼슨기념관 링컨기념관	· 공공기념공간 개발 조례 제·개정 기초 자료 활용 · 도시녹지형 식물문화복합시설 타당성 검토 자료 활용
사회건설위원회 (복지지역개발 분야)	Dorot 어르신복지기관 (기관 변경 가능)	· 어르신 정서지원 정책 고도화 · 어르신복지관의 지역 돌봄 기능 확대 · 세대 간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필라델피아 시청	· 신청사 건립시 참고자료 활용
	911메모리얼파크 한국전 참전 기념비	· 우리구의회 차원 보훈사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활용 · 지역 내 역사·안보 기념공간 조성 검토 자료 활용
	하이라인공원 리틀아일랜드	·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공공공간 활성화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구에 적용가능한 사례 분석 및 검토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요약		
출장명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출장자 명단	의원	정선희, 유승용, 이규선, 양송이, 차인영, 최봉희, 김지연, 남완현, 전승관, 이순우, 임현호, 박현우, 신흥식, 이성수, 우경란, 최인순
	직원	수행1, 수행2, 수행3, 수행4, 수행5, 수행6
출장기간	2025.9.4.(목)~9.12.(금)	
방문국가	미국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UN본부, 국회의사당 워싱턴 D.C.의회(Josh Gibson) 버젠 패밀리 센터(Mitch Schonfeld) 뉴욕 공립도서관(Isma Richards) Dorot 노인복지기관(복지 및 친환경시설 변경 가능)	
여행경비	체재비	50,297,040원
	준비금	1,387,400원
	항공료	26,217,400원
	차량임차료(국외)	20,192,200원
	차량임차료(국내)	990,000원
	가이드비	4,027,100원
	입장료	2,574,800원
	섭외비	3,442,500원
	통역비	2,115,000원
	물품구입(기념품)	400,000원
	총 계	111,643,440원

비용 상세정보								
총 출장경비 (A+B+C +D+E+F+ G+H+I)		111,643,440원						
체재비 (A=a+b+c)		50,297,040원						
	적용환율	1\$=1,392.0원(2025.7.18. 외 환)						
구분(금액)	급지	호수	상한	일수	인원	산출금액	실지금액	
	일비 (a)	가	4	219,240	9	2	438,480원	438,480원
		가	5	187,920	9	20	3,758,400원	3,758,400원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식비 (b)	가	4	1,042,608	7	2	2,085,200원	2,085,200원
		가	5	789,264	7	20	15,785,200원	15,785,200원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숙박비 (c)	가	4	1,586,880	6	2	3,173,760원	3,173,760원
		가	5	1,252,800	6	20	25,056,000원	25,056,000원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O]							
준비금 (B)		지급사유: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				금액: 1,387,400원		
항공료 (C)		이용구간: 인천→뉴욕, 뉴욕→인천				금액: 26,217,400원		
차량임차료 (D)		국외: 7일, 대형버스 국내: 2일, 대형버스				금액: 21,182,200원		
가이드비 (E)		가이드비				금액: 4,027,100원		
입장료 (F)		UN본부(39,500원*20명=790,000원) 도서관(28,200원*23명=648,600원) 미술관(49,400원*23명=1,136,200원)				금액: 2,574,800원		
섭외비 (G)		UN본부, 국회의사당, 도서관, 뉴욕복지기관, 워싱턴D.C.의회, 버겐패밀리센터				금액: 3,442,500원		
통역비 (H)		이용내역: 복지 및 친환경시설, UN본부, 국회의사당, 워싱턴 D.C.의회, 버겐 패밀리 센터, 뉴욕 공립도서관				금액: 2,115,000원		
기념품 등 물품구입 (I)		구입목적: 방문기념품 물 품 명: 전통부채(20개)				금액: 400,000원		

[붙임2]

심사위원회 회의록(출장 전)

2025년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일 시 : 2025년 8월 19일(화) 14:00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심사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5년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14시 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000 안녕하세요?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000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선출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000 제1호 안건,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회에서 후보자 없이 소속 위원 중에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는 방법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선임할 대상자를 구두로 추천하시면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임시 위원장이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위원장을 추천을 해주셔야 정식으로 위원장이 되죠.

○000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연장자가 하시는 거는…….

○000 위원 000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000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000 위원 지금 서울시합기도협회 회장도 하시고 지구당 위원장도 잠시 하신 000 위원을 이번에는 추천합니다.

○000 위원 그동안 000 위원장님께서 전반기에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연임이라는 건 있을 수 있나요?

○간사 000 예, 문제는 없습니다.

○000 위원 아, 예. 저쪽에 정 위원님께서 000 위원님을 추천하셨으니까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000 어떻게, 두 분 다 일치하신 거예요?

(「예」하는 이 있음)

000, 000 위원님께서 000 위원을 추천하신 거죠?

(「예」하는 이 있음)

000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은 없으십니까?

○000 위원 동의합니다.

○000 위원 혹시 연임 가능하시면 연임하시면 어떠신지요?

○위원장직무대행 000 예?

○000 위원 연임 가능하시면 연임하는 것도…….

○위원장직무대행 000 그대로요?

○000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000 또 다른 의견은요?

○000 위원 000 위원님도 동의하셨으니까.

○000 위원 계속 고생을 하셨으니까.

○000 위원 고생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면…….

○위원장직무대행 000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시죠?

○000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000 그러면 두 분 위원님께서 000 위원을 추천해 주셔서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신 걸로 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000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께서서는 위원장직으로 이동하시어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신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장직무대행, 000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000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선출된 000입니다.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000 위원장님께서 우리 공무국의 심사위원들을 이끌고 정말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셨고, 영등포구의회가 발전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특히 저를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

를 드리면서, 영광보다는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8만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의원님들이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세계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떠나는 공무국외출장이 공정하게 많은 것을 보고 올 수 있게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심의하시고 또 도와줄 거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줄이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8분)

○위원장 000 감사드리면서 제2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호 안건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부위원장님을 한 분 추천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들 부위원장 추천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000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000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위원장 000 방금 000 위원님께서 000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좋은 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000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사를 하시는 겁니까?

○000 위원 저는 고사하고, 우리 000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000 방금 추천받은 000 위원님께서 000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동의 나오셨고.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동의에 이어 삼청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000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만장일치로 000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리 존경하는 000 부위원장님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안녕하세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찬성으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영등포구의회 모든 일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구민에 어긋나지 않는, 구의회의 모든 발전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000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5년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14시 11분)

○위원장 000 제3호 안건, 2025년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는 영등포구의회의 의원 및 직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동시에 이뤄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간사로부터 본 심사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사 000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자료 1쪽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은 선진국가의 의회 운영, 주요 정책 운영 실태 등 우수한 정책과 제도를 학습하고 우리 구에 적용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2쪽 출장 개요입니다.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총 6박 9일의 일정으로 방문국가는 미국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 총 17명 중 16명이 참가하여 의회 운영, 교육·문화, 복지·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수행 직원은 8명으로 출장 간 의원들을 보좌하고 일정 관리, 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쪽에서 3쪽까지 국가·도시별 비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뉴욕 존에프케네디 공항 도착, 이후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등을 돌아보고 9월 11일 뉴욕에서 출발하여 9월 12일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

정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방문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식 방문지는 의회 운영, 교육·문화, 복지로 크게 3개 분야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 분야입니다.

첫째로, 뉴욕에 있는 UN본부에 방문하여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이행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둘째, 워싱턴D.C.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연방정부·주정부 간 정책조정 구조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중앙·광역·기초단체 간의 정책 연계 방안 등을 연구하고 오겠습니다.

셋째로, 워싱턴D.C.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운영 체계 벤치마킹을 통한 지방 입법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분야입니다.

첫째로, 뉴욕에 있는 뉴욕 공립도서관에 방문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공공도서관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오겠습니다.

둘째로, 뉴저지에 있는 버겐 패밀리 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통합형 커뮤니티 서비스 모델을 조사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을지 벤치마킹하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분야입니다.

뉴욕에 있는 노인복지기관에 방문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어르신 복지 증진모델을 분석하여 우리 구 복지기관에 좋은 점을 반영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밖에 6쪽에서 7쪽, 현장시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붙임1과 붙임2, 공식방문 및 현장시찰 주요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출장자별 업무 내용입니다.

3개의 분야로 나뉘어 방문지 현황조사, 질문지 작성 등 의원별로 업무를 세분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행직원은 방문기관 일정 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자료조사 및 수합 등을 담당하고 특히 행정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담당 정책지원관은 귀국 후 의원님을 보좌하여 어떻게 하면 관련 조례 제·개정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소요예산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1,395만 7,304원이며,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 국외여행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국외여행비는 총 8,487만 4,104원으로 그 중 항공운임은 2,860만 800원, 일비·식비·숙박비를 합한 체재비 5,475만 7,104원, 여행자 보험료와 비자 발급비를 합한 준비금 151만 6,200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차량임차료 2,119만 2,000원, 가이드비 402만 7,200원, 입장료 386만 4,000원을 합

한 의정운영공동경비 총 2,908만 3,200원은 계약 및 지출증빙을 통해 별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국외여비 산출내역과 10쪽 출장 주요정보 요약부터는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국가와 출장 기간의 타당성, 출장 경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하여 영등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워싱턴D.C.의회와 노인복지기관 등 공식기관 방문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해외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기관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심사 후 공식기관 방문지나 소요경비 등이 일부 경미한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000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방문국에 대한 의회 운영, 교육·문화, 복지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례합니다만 저 방청객에 계시는 세 분은 누구시죠?

○간사 000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동행하는 저희 정책지원관 두 분과 사진촬영 전담 직원입니다.

○위원장 000 예, 우리 직원분들…….

○간사 000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내용도 저희가 같이 듣고 공무국외출장시에 참고할 사항들을 체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직원들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000 예.

(거수하는 이 있음)

000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방문지를 바꾼 게 있어요,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버겐으로 바꾼 이유는 뭔지요?

○간사 000 저희가 해외 공식 방문기관하고 조율 중에 그쪽에서 다른 일정이 생기기도 했고, 간담회 공간과 관계자 미팅 등이 좀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바꾸게 됐습니다.

○000 위원 여기도 사회복지센터 비슷한 곳인가요?

○간사 000 사회복지 분야로만 볼 순 없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센터라고 생

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종합 커뮤니티 센터인가요?

○간사 000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000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000 위원 예.

○위원장 000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은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갔다가 우리 타임스퀘어 지하 2층, 우리 현황하고 비교식으로 나왔는데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자료예요.

메트로폴리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실제로 전시 개념이나 이거는 관광하는 사람이 관광 목적으로 가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배워오고 그럴 자료가 나와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일부 정책적인 게 필요할 때는 그쪽에다 정식 요청을 해 오면 자료를 보내주지만, 사람이 가서 이것 좀 물어본다고 답변 안 해줍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를 가야 할까요? 그래서 전 여기 하나 의문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퍼슨기념관하고 링컨기념관, 여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관광객들만 들끓고 일반 자료는 안 보내줘, 또 자료가 없어요. 기념관을 운영하는 건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특별하게 거기서 뭐 자료를 달라, 우리 영등포 기념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비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메트로폴리탄, 제퍼슨기념관, 링컨기념관, 또 하나 추가한다면 한국전쟁참전기념비는 부산 UN군 묘지 갔다 오면 더 빠릅니다, 솔직한 얘기에요.

그래서 UN군 참전묘지는 전주인가, 거기 지방의회에서도 몇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어갖고 다 취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금 또 더구나 주민의견서 제출 요약 자료도 보고, 많은 구민들이 지난번 유럽 갔다 온 거에 대해서도 많이 묻기도 하고 또 반영된 것이 몇 % 반영됐는지, 이거를 물어본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자료를 갔다 왔으면 달라고 하는데 자료 주기로 했었는데 안 줘 갖고 제가 전화를 해서 가까스로 갔다 온 자료를 봤는데 그냥 요약본이에요, 관광 갔다 온 기행문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 1억 1,300에서 저는 네 군데를 빼 갖고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약 18% 정도 줄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000입니다.

○위원장 000 우리 000 위원님 지역이 메트로폴리탄하고 또 어디 어디죠?

○000 위원 제퍼슨기념관, 링컨기념관하고…….

○간사 000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기념관, 그런 거는 우리가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포섭이 되니까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한국

전쟁기념관은 저희들이 가볼 만합니다. 저도 UN 갔다가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에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오서 가지고 타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그마한 나라 가면, 첫 이미지가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자그마한 나라에 가서 영혼을 불사르다가 돌아가신 영혼에게, 이렇게 쪽 쓰여있는데요. 거기에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때 우리 한국교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게 됐을 때 저희들이 기부금을 냈어요, 기념비에다가. 거기 기념비 새로 뒀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그때 저희들 이름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는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제 이름도 가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념관을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000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권고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1일 1기관 방문이 일단 권고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루에 여러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이에 대한 소명을 명확하게 해야 해서 기관 방문은 최소화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공식기관 방문은 6개로 정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1개 기관을 하루종일 방문할 수는 없다 보니 그 외적인 시간에 저희가 자유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또 휴식시간을 취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배울 수 있는 또 견문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찾아 보니 아까 말씀하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저희 영등포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미술관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우리구에서 미술관처럼 어떤 문화시설을 짓거나 도입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운영실태도 현장에서 직접 보고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기념관들은 저희도 기념사업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어서 단순히 관광 목적이란기보다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참전기념비는 당초에는 저희가 한국전 참전하신 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는 계획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간담회 장소나 일정 등을 또 조율하는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도 있어서 …….

○000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선 예산 문제가 집행된 게 상당히 여러 가지 구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난번 갔다 왔을 때 예산이 한 8,000 정도였었어요, 유럽 쪽으로 갔을 때. 그런데 불과 1, 2년 사이에 현재 3,000만원이 늘어나고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의아한 사람들도 많고 물론 구의원들께서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하시고 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고생들 한 건 다 알고, 그다음 번에 무언가가 더 우리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겠다 생각을 하지만, 솔직한 구민들 의견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년이면 구의회에 안 들어올 사람도 구태여 가서 뭘 배우고 와서 구의회에 뭐가 필요하냐.’ 아주 대놓고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오해받기 딱 좋은 데는 좀 뺐으면 좋겠다, 저는 차라리 더 집중을 하고 그다음 예산은 위원회에서 이렇지만 이보다 더 줄였다, 줄여서 좀 알

차게 갔다 오겠다, 이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사 000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용 차량 임차료하고 가이드비라든지 통역비 같은 게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하루하루 딱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일부 시설을 안 간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적긴 합니다. 그리고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관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입장료가 없는 곳이구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입장료를 잡은 곳들은 UN본부 같은 곳만 잡았습니다.

○000 위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경우는 지금 63빌딩, 영등포 여의도에 미술관 지금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는 건지 그것도 의문점이 좀 들더라고요.

○간사 000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63빌딩 연계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진 못했습니다.

○000 위원 거기에 지금 미술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계적인 미술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간사 000 예, 저희가 그것도 적극 참고해서 저희가 가기 전에 한번 그 부분도 좀 파악해서 가겠습니다.

○000 위원 63빌딩에 들어와요, 미술관. 그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가서 보고 오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더 나은 미술관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간사 00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000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충분한 답이 되시는지요? 또 아니면 지금 우리가 계획에 있는 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특별하게 입장료라든지, 그리고 임차되어 있는 버스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주변에 보면 사실 문화예술의 중심지이고 그러다 보면 박물관, 예술관, 공연장, 거기까지 가서 또 공연 보러 가는 건 아니니까 보고 올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간사님이 계속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간사 00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000 보충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이 또 하실 말씀하시고 위원장이 진행하기보다는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 짓고 오늘 회의를 산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위원님.

○000 위원 주민의견 제출 사항을 꼭 읽어봤는데 당연히 우리 구민들로서 모르기 때문에 의문을 품고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의견인데, 이런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갔다 와서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자료들을 제시를 해 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를 대응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000 위원님도 참 좋은 의견,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링컨기념관 같은 데를 가

보면 링컨의 조각상이 탁 보는 순간에 저 같은 경우는 ‘아!’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고뇌에 찬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영등포 의원님들도 한 번 가서 가지고 기념관 탁 보면서 아주 그 모습이 되게 고뇌에 찬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 건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6.25 참전기념비 같은 데 가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어떤 그런 애국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아, 내가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장소예요, 기념관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찌 보면 이거 관광성 아니냐, 이렇게 봐 버리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느낌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한테 잘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갔다 와서.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이렇게 느끼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구민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000 예, 알겠습니다.

○000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맨해튼 같은 데 가면 증권가에 황소상이 있잖아요, 황소. 우리 여의도에 증권가가 또 있잖아요. 황소상을 보기 위해서, 만져보고 그러는데. 우리 영등포도 증권가가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광성보다는 오히려 그 현장에 가서 그런 거를 보고 느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잘 짰다고 저는 봅니다.

○간사 000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000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또 다른, 위원님.

○000 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속하는데 해외에 나가는 것 갖고 계속 주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해외를 많이 갔다 와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공무원들도 여기 보니까 8명밖에 안 되는데 이 숫자 적어요. 더 많이 나가야 돼요. 많이 가서 그걸 보고, 여기에 보면 구글에서 보고 인터넷에서 보면 되지, 그걸 왜 가서 그것 하느냐?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 인터넷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옛말에 서울의 남대문에 가본 사람하고 지방에서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뉴욕에 가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여의도공원을 만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야기한 게 뉴욕의 센트럴파크하고 일본 히비야공원입니다. 그걸 갔다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면서 우리 여의도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지방 의원님들이 많이 가봐야 됩니다. 가서 보고 만약에 우리 관내에, 지금 아까 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도 기념관 만들어야 돼요. 우

리 영등포의 시스템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5.16 때 이럴 때 보면 그런 어떤 문래동 있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도 찾아 만들어야 되고.

명색이 우리가 영등포가 문화도시라고 국내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인데.

미술관 하나 제대로 없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서 배우고, 거기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이런 걸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와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은 외국에 나갈 수 있으면 많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원도 없고 나라도 좁고 결국은 벤치마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에 안 나가 보신 분들은 자꾸 가면 돈이 얼마 드네, 돈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돈 지금 1억 얼마 듭니다. 우리 공원 하나 만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듭니까?

○000 위원 10억.

○000 위원 그러면 공원 만드는데 외국에 공무원들이 안 가봤어요. 그러면 나갔다 오신 분들이 아까 000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갔다 오신 분들이 그것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우리도 이렇게 만들자. 공무원들은 나는 그거 몰라, 안 가봤으니까.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의 의견대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기가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와서 만들려고 하면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듭니까?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 YS정권 때요, 정부 때 공무원 해외여행 자율화를 주장하니까 그 핵심 YS정권에 있던 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주위에서 다 돈 뜯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그러면 국제화, 세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구호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을 많이 나가서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선도해서 나가야 돼요, 사실은.

또 지방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관련되는 것은 다 보게 돼 있어요.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나가면 딱 공항에 내리는 순간에 밑에 보도블록부터 보게 돼 있어요, 보지 말라 그래도. 우리 기자들이 나가면 기자들은 당연히 자기가 취재할 것 다 보게 돼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방 의원님들이 많이 가서 많이 보고 와서 여기에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또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런 걸 충분히 반영, 그것 반영 1개만 시키면요 지금 이 우리 예산 전체 다 들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어떤 거국적인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옛날처럼 자꾸 그것 하면 대원군 쇄국정책 하듯이 하면 우리나라가 계속 고립되고 되겠어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지역주민들이 살림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이 좀 더 멋있게 하고 했을 때 집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많이 보고, 이 방문지도 꼭 그런 걸 자꾸 염두에 두고 뒷골목이고 뛰고 갈 수 있는 데 다 가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원도 별로 없는데 뉴욕에도 공원이 많아요. 우리도 우리 관내에 여의도공원부터 시작해서 영등포공원, 또 저 뭐 공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공원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지금 뭐 아까 센트럴파크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거의 마약공원 이런 범죄의 공원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공원을 관리해서 그런 게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전부 배워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000 우리 000 위원님께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000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방문 국가를 미국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어떤 미국 선택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다른 나라들도 물론 있는데.

○간사 000 아무래도 선진국가고 미국의 지방자치, 의회 운영, 행정시스템, 복지정책 등 저희가 벤치마킹할 요소들이 워낙 많습니다. 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별로 방문국가와 도시를 정하게 추진했는데, 공교롭게 양쪽 위원회가 모두 미국으로 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000 위원 서울시가 25개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간사 000 예.

○000 위원 지금 그 자치단체들도 지금 이 시기에 다 공무국외출장을 나가나요?

○간사 000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어떤 의회에서는 9월 중순 경에 미국, 저희하고 같은 국가, 도시를 가더라고요. 이미 갔다 온 구의회도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대부분의 자치구 의회들이 공무국외출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여기 영등포구의회에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간사 000 인원수에 따라서 당연히 1인당 들어가는 소요경비로 산정이 되고 국가에 따라서 일부 등급에 따른 비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버스 임차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결정했고 직접 계약을 통해서 지급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000 위원 혹시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체가 몇 분이신가요?

○간사 000 직원은 저희가 임기제까지 다해서 40명 정도 됩니다.

○000 위원 사십 분?

○간사 000 예, 40명입니다.

○000 위원 그중에서 지금 여덟 분이 지금 가시는 거잖아요?

○간사 000 예.

○000 위원 그러면 그 여덟 분 가게 된 선발된 동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간사 000 당초에는 저희가 지원신청을 받았습시다. 지원하실 분들 지원해라. 그런데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공무국외출장 가다 보면 국가에 따라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국가가 있으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는 행안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그동안에는 국외 여비에서만 썼는데, 이제 사무관리비나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도 쓸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공통경비에서 한 2,900만원 정도 책정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별하게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긴 했습니다.

○000 위원 목적이 지금 의원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함께 국외 출장을 가시는 건데 물론 직원분들은 의원님들 보좌하고 수행하고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겠죠?

○간사 000 예.

○000 위원 지금 비율로 보면 의원님들이 열여섯 분인데 직원이 여덟으로 단순하게, 내용이야 다 구체적으로 하는데 우선 딱 보기에선 직원이 너무 많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직원들이 가는 목적이 물론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의정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직원분들도 나름대로 주어진 업무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하겠다, 이런 거를 강조를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요. 그게 의원님들 위주로만 이렇게 짜여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간사 000 기본적으로는 사실 의원 공무국외출장이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같이 심사를 해서 보좌하는 역할로 동행을 하는 건데 저희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국의회들 가거나 계획 중인 데를 대략 조사를 해봤는데 의원 대비 직원 비율이 50%까지 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의원님 열두 분이 가시는 데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한 5명, 4명 이런 식으로 비율이 좀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직원수를 줄이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역할, 업무 역할을 좀 더 계획서에 넣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많이 가시니까 그 역할을 강조를 하면 어떤가 그런 의견이 들어서요.

보면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정책 관련 조례 자료조사, 의원님들 보좌하는 위주로 돼 있는데 보좌 말고도 좀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영역이 있으면 그것도 강조해서 안을 짤으면, 그게 좀 아쉬워서요.

○간사 000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분장을 좀 더 세분화해

서 계획서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00 위원 예.

○위원장 000 000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000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000 그러면 000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간사님께서 귀 기울여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000 위원님도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저는 특별한 게 없고요, 훌륭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000 예. 우리가 좋은 정책이나 실제로 보면 좋은 기술을 배우러 가는데 어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예산은 수밖에 되 있습니다. 예산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예산 경비 부분도 보면 항공권이라든지 숙박, 교통비, 관광지에도 입장료 이런 것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선물비용 이런 것은 상대국, 상대기관에 가는데 이런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간사 000 이게 당초 계획이라서 그렇고, 저희가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좀 있고요.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을 기념할 수 있는 전통 부채 정도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000 예, 예비비라도 있으면 좀 그렇게 준비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 주변에 보면 주민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직접 1인시위도 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과감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나서셔서 지역이랄까요 그리고 지역구, 속해 있는 문래동이다 당산동이다 이런 지역구가 있으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아니면 주민님들께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

공무국외출장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걸 의원님들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출장 결과가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 반대하는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여기에 공무국외 심사위원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의정팀도 마찬가지고 이 출장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6박 8일의 미국 출장을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 그리고 여기에 소위 말하는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지만 관광성이 있는 몇 군데가 있다, 이런 부분도 왜 가야 되느냐?

우리 영등포에 앞으로 예술관도 문화관도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확보할 수 있

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도 전달해 주시고, 갔다 오면 보고서를 꼭 좀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000 위원 지금 원안 이대로 통과한다는 것보다…….

○위원장 000 아니요,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000 위원 통과 안 됐죠?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000 예. 제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000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지금 정해진 예산을 갔다 와서 절감한다 그러는데 그게 되지를 않거든요.

○위원장 000 예, 아직 검토 중이고요.

○000 위원 예산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4건 방문 보류 또는…….

○위원장 000 문 위원님!

○000 위원 지역 방문 예산 절감으로 구민 세금 절약의 모범을 보이자.

○위원장 000 예, 알겠습니다.

○000 위원 이 항목이 들어가게 그걸 넣자 이거예요.

○위원장 000 문 위원님, 제가 지금 뭐 의사진행을 하면서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000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께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출장을 갔다 온 후에 꼭 보고서를 작성해서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책자를 언론에서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리는 그런 SNS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투명하게 말씀을 하시면 지역주민들이 예산 부분이라든지 왜 너희가 가는데 이런 얘기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의정팀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그러면서도 실제로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외국어를, 영어를, 일본어를, 중국어를 잘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마는 우리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늘 이렇게 상대국의 어떤 기관을 잡았을 때 만약에 그쪽에 사정이 생기면 핑크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직원님들도 공무국외출장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가는 의원님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르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의 일부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런 분이 있다면 먼저 사전답사를 통해 가지고 조율을 하면 이 행사가 좀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알차게 공무국외출장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출장 기간 동안에 통역이나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심층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간사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출국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전지식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갔다 오셔가지고 보고서를 제대로 한번 써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간사 000 그 부분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000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000 저희가 결과보고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공무국외출장을 가다시피 하지만 그때마다 보고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의원님들도 당연히 보고서를 최선을 다해서 쓰실 거고요. 저희 직원들도 같이 보좌해서 구민들을 위한 정책과 관련 조례들 제·개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충실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000 예, 보고서 게시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라도 최소한 다녀오시면 빠른 시간 내에 티타임이라도 하면서 같이 좀 설명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사 000 나중에 또 결과보고서를 심사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000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000 위원님.

○000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000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번에 공무국외출장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썼는데 기행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기행문이라고 말씀하실 적에는 보고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보게 되고요.

그럼 저번에 공무국외 갔다 와서 저희 의회가 발전된 게 무엇이며, 마케팅을 하든지 벤치마킹을 하든지 간에 무엇이 우리가 그쪽에서 보고 와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게 발전성 있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예시 하나, 두 개 정도는 아마 올리면 구민들이 그래도 ‘아, 우리 구의원들이 해외 출장 가서서 이런 거를 보고 와서 우리 구가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한 하나의 관광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주민 의견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냥 관광을 간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영등포구의회는 이런 것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있어야 관광으로 인한 공무출장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000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000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000 위원님께서 전체 예산 1억 1,300만원 중에 지금 메트로폴리탄을 비롯한 한 4개 장소를 말씀을 하셨어요.

간사님, 지금 계산은 안 나오지만, 그 부분이 부적합하다면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바웃으로.

그냥 한번 계산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 보충 부탁드립니다.

그것 한번 계산해 보시죠.

○000 위원 4개의 용도를 갖다가.

○위원장 000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아까 말씀드린 데 네 곳을 빼버리면 예산을 줄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18%를 갖다가 좀 줄입시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예산을 여기서 결정 안 지어놓으면 이 예산, 갖다 와서 얼마 줄였다 소리는 없어요. 그대로 다 쓴다고 봐요, 1원 하나 안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여기서 예산을 어느 정도 심의를 해서 확정시켜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000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장료로 책정한 거에 보면 사실 기념관 2개하고 한국전참전기념비는 입장료가 없는 무료이구요. 미술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입장료가 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000 위원 제가 말씀드린 18%라는 얘기는 네 가지를 뺐을 때 그 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겠다는 건데…….

○위원장 000 우리 000 위원님, 18%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8%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거죠?

○000 위원 여기 이 네 군데를 가는 데에 대한 차량 대여비라든가 이 네 군데 가이드 볼는 거라든가 이걸 감안했을 때 본 거거든요, 계산을.

그래서 약간의 착오는 있겠지만 메트로폴리탄은 전에 제가 갔다 온 데고 참전기념비도 갔다 온 데이기 때문에 그때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약간 차이는 날 거예요.

○위원장 000 그런데 이제 네 군데에 가서 과연 우리가 우리 영등포구하고 접목할 것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네 군데를 뺀다고 봐서는 입장료 외에는 거의 빠질 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간사 000 예, 맞습니다.

○위원장 000 그래서 이게 부적절 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서 본인들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시니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기에 부적합한 이유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또 협의해서 어떤 안을 통과시키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선진국에 가서 어떤 정책기술 여러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력이 있는 나라고, 지역주민 38만의 혈세를 헛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저는 개인적으로는 각국에 가면, 상대국에 가면 기관을 방문하는데 아까 한국을 알리는 작은 인형, 이런 건 아니지만 무슨 기념품이라도 하나

를 갖고 가는 예비비가 오히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편하게 본인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볼게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않아요?

○간사 000 예.

○000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열일곱 분이고 한 분은 안 가시고 열여섯 분 가시고, 그러면 이렇게 매년마다 전체 다 나가시는 건가요?

○간사 000 매년 예산은 책정되어 있기는 하고 올해는 위원회별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방문국가라든지 출장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다 했는데, 공교롭게 정말로 미국으로 두 위원회가 겹치다 보니까 따로따로 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차량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예산 절감도 할 겸 저희가 같이 가는걸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임기가 4년이지 않아요?

○간사 000 예.

○000 위원 그러면 4번 다 다녀오시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 000 물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시죠.

○000 위원 아니, 이제 구민들 시선이 보기에 예산도 많고 자주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2년에 한 번 다녀오신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매년 가시는 것 보다는, 그렇게 또 그런 방법도 있죠.

○000 위원 저번에는 세 분이 안 가셨어요. 의원님 세 분이 안 가시고, 우리 행정직 직원 이 5명인가…….

○간사 000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하시니까.

○000 위원 그러니까요.

○간사 000 격년제로 가는 것도 검토하라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런 것도…….

○000 위원 그건 제가 뭐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런 시각이,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간사 000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000 간사님은 저런 것도 잘 전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간사 000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000 000 위원님.

○000 위원 여기 일정을 보면 제2일날 9월 5일이죠, UN본부 갔다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가는 게 있고, 그다음 제4일날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으로 해서 제퍼슨기념관, 링컨기념관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메트로폴리탄이 한 건 빠지고 네 가지가 빠지면 이들이 하루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체재비 5,400 들어가는 거에서 줄일 수가 있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면 한 2,000만원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000 제가 보기에 이미 지금 …….

○000 위원 네 가지를 빼면 일정이 하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재비, 운영경비 다 줄이면 2,000만원 줄일 수 있다.

○위원장 000 예, 알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오늘이 8월 8월 19일인가요?

○간사 000 19일입니다.

○위원장 000 8월 19일인데 이미 이게 9월 4일날 가니까 티켓팅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다 되어 있죠?

○간사 000 예, 항공권하고 숙소 등 일부는 예약돼 있습니다.

○위원장 000 항공부터 숙소 예약, 현지에서 이동하는 버스 다 예약돼 있을 겁니다.

○간사 000 예, 맞습니다.

○위원장 000 이것을 만약에 줄인다면 위약금이 더 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스케줄이 좀 줄일 건 줄여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체 공무국외출장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000 위원 출장계획서 짜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먼저 조율 비슷한 그런 의견을 한번 물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간사 00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리 챙겨서…….

○000 위원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간사 000 위원님들께 그렇게 좀 더 일찍 자료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000 위원 되게 아쉽네요.

○위원장 000 간사님, 9페이지에 밑에 국외여비 산출내역에 준비금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간사 000 예.

○위원장 000 의장님은 3만 5,000원, 부의장님은 6만 4,400원. 이걸 뭘니까?

○간사 000 비자발급비라는 게 있는데요. 비자가 이미 있으신 분은 비자발급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의장님이…….

○위원장 000 이스타 비자?

○간사 000 예. 그래서 비용이 좀 낮게 된 겁니다.

○위원장 000 우리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000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유 있고,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000 예, 맞습니다.

○위원장 000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미 시간은, 오늘이 8월 19일이고, 9월 4일인데 현지하고 다 이렇게 예약이 되고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난감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000 위원님 어떻습니까?

○000 위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요.

○000 위원 이미 계약이 다 됐고 완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줄인다고 해서 몇 푼 얼마 줄여지지도 않는데, 괜히…….

○000 위원 제 생각에는 제일로 좋은 방법은 지금 국민들 여론도 그렇고 시각이 별로 좋게 안 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저희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게시판에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셨으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000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보면 우리가 항공료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 교통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사실은 어떤 호텔에 묵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디를 가고, 어떤 비행기를 타고, 이런 거에 대한 금액 차이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공무원 산출 근거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에 의해서 근거 없이 이렇게 한 건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간사 000 예, 맞습니다.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전부 여비 규정에 따라 한 겁니다.

○위원장 000 의장은 얼마까지, 부의장은 얼마, 의원은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줄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000 위원님은 2,000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000 위원님 말씀하신 좀 빨리, 앞으로는 000 부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좀 빨리 이런 걸 나가실 때 저희들한테 통지도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시간을 좀 벌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간사 000 예, 알겠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격 변경이 된다면 이게 날짜를 줄일 수 있는 거는 되나요? 그건 안 되죠?

○위원장 000 안 되죠.

○간사 000 지금 조금 사실 좀 어렵고요. 비용을 줄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줄이는 만큼 위약금으로 줘야 되는 부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 면밀하게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방문기관을 더 첨부를 하는 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광지, 이런 기념관보다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그런 여건에 맞는 그런 데를 한두 군데를 더 바꾸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안 될까요? 뉴욕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간사 000 저희가 1일 1기관 방문을 최대한 충족해서 계획을 짰 거기도 하고요. 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사항이나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1일 1기관 정도만 하고 방문기관을 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가…….

○000 위원 저희가 방문하는 건 우리 구의회에서 짚지만, 나머지는 대행업체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의회에서 정말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곳을 한두 군데를 교체를 하면 어떻겠나,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그런 면도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000 위원 구의원들도 품위가 있단 말이에요. 품위를 유지하면서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치는 판인데 1억을 들어서 간다 그러면 1억 미만, 9,000에 간다고 하면 사람이 이해하는 거하고 1억이 넘게 들어서 간다는 거하고 개념의 차이가 확 크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좀 줄여서 금액을 조금, 여기 공동경비라든가 체재비를 좀 줄여서 이걸 하면 설득력이 있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누가 봐도.

왜냐하면 1억이 넘는다고. 9,000만원에 갔다 온 거, 9,400이란 말이에요, 지금. 충분히 갈 수가 있겠다. 그런 걸 감안 좀 해야 돼요. 대외적인 것도 감안을 하셔야 이거예요, 지금.

○간사 000 예.

○000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8,000 얼마에 갔다 왔는데 어, 1억이 넘어?’ 그러면 벌써 사람이 언성이 높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1억 이하하고 1억 이상하고는 차이가 확 크다.

○위원장 000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구의회 의원 수가 많으면 1억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1억, 9,000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무국외출장을 통해가지고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보고 와서, 어떻게 벤치마킹을 해서 1억 1,300을 투자하고 11억 3,000만원을 벌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는 비판을 받더라도 가야 될 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영등포구의 38만이 여기 와서 다 시위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고 몇몇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분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다 오셔서 의장님부터 부의장님, 의원님들이 비판을 받더라도 이게 꼭 가야 되고 정당하다면 저는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제가, 지금 1인당 경비를 보면 저도 해마다 미국을 두 번씩 가고 10월 말에도 미국을 가지만 적정한 선 같습니다. 아껴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남는다면, 그 금액을 아낀다면 구의회에서 반납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심사 자료도 보시고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000 위원 아까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

○간사 000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당초 8명으로 해서 업무분장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의견서가 들어온 것도 있고 또 타 회의에서도 가는 직원 수 좀 비교해 보고 그랬을 때 저희도 6명으로 줄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6명으로 했을 때의 비용산출로 약간 수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를 보시고 적정인원을 심사해주시면 어떨까요?

(자료 배부)

○위원장 000 어떤 겁니까?

○000 위원 얼마 정도 차이 나요?

○간사 000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무국장,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한 상태인데, 저희가 당초 24명 했을 때 현재 예산이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2명을 줄였을 때 자료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방문 섭외비가 일부 좀 들어가고요. 통역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 보니 1억 1,1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변경이 될 소지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6명으로 줄여주시는 것도 심사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000 변경 전, 변경 후가 2명 감소했을 때 231만원입니다.

○간사 000 예. 여비 감소액 697만 2,000원은 직원 수에 대한 2인 취소 여비가 줄어드는 건데요. 기타 사무관리비가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차이는 한 23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000 아니, 그 두 명의 직원분들도 이미 공무국외출장에 같이 멤버가 돼서 준비도 하시고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이 그분이 사진을 찍든 필 하든지 빠지면 거기 또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000 위원 아니, 그냥 가시는 김에 두 사람 빼서 230만원 차이밖에 안 되는데 기왕 잡아놓으신 거니까 이번에는 그냥 출장을 다녀오시고 다음에 출장 가실 적에는 먼저 저희들하고 조율을 하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000 그런데 이게 22명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바꾼 상태고 만약에 다시 24명 다 가게 되면 이것보다 더 늘어나긴 합니다. 1억 1,300이 아니라 여기 자료를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그대로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이거 보다는.

○000 위원 여기 24명이 갔을 경우에는 1,000만원이 더 플러스되는 건가요? 관리비, 일반 관리비, 섭외비, 통역비, 방문기념품비는 기타가 안 되고 그냥 기념품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간사 000 그러니까 변경 전에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예산이 약간 미흡하게 작성된 부분도 조금 있어서 그렇고, 변경 후 이제 여기에서 2명이 다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체재비가 다시 증가합니다.

○000 위원 그렇죠?

○간사 000 예.

○위원장 000 부위원장님, 설명되셨습니까?

○000 위원 예.

○위원장 000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000 위원님 18% 줄여야 되는데 2명 늘어나면 지금 돈이…….

○000 위원 22명으로 하는 게 맞아요.

○000 위원 다 알아서 하시라고 합시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표시하시고 찬반 결정을 그냥…….

○000 위원 22명으로 하시는 거죠.

○000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인원을 22명으로 해라, 24명으로 해라, 예산을 이렇게 200만 원을 줄여라, 300만 원을 줄여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간사 000 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000 할 수는 있죠.

○000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하는 분에다 맡기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해 주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스무 명이 가든지 22명이 가든지 이것은 의회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000 지금 22명이나, 24명이나 둘 중이잖아요?

○간사 000 저희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 계획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정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000 위원 22명으로…….

○간사 000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두 명을 취소하게 되면 다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데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명 합쳐서 한 50만원 정도 되는데 개인 사유로 취소를 할 때는 취소자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심사 결과를 토대로 취소한다고 의결이 되면 이 부분은 예산에서 집행했으면 합니다.

○000 위원 그러면 50만원 주면 150만원인데 그대로 가는 게 어떠냐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150만원 그거 하는 거나 150만원에서 200만원 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미 다 해놨는데, 예약해 놔는데 그거를 가지고 두 명을 빼고 두 명을…….

○000 위원 그게 아니고요.

○간사 000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도 다 했고, 또 행안부에서 어쨌든 권고사항도 내려온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가 직원들 출장 인원 최소화하는 것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번 결정을 토대로 가급적이면 저희도 좀 권고사항에 맞게 출장 직원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위원장 000 예.

○000 위원 오늘 아침에 YTN에서도 나왔잖아요. YTN 뉴스에 나왔어요. 해외공무 출장에 대해서 오늘 YTN 뉴스에 나왔는데, 권익위원회, 경찰 조사 이게 오늘 뉴스가 아침에 떴어요.

○간사 000 예, 맞습니다.

○000 위원 24명 하면 예산이 좀 늘어나는 거죠?

○간사 000 예, 늘어납니다. 현 상태에서 24명으로 하면 1,500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은 됩니다.

○000 위원 그러면 총액수가 얼마가 됩니까?

○간사 000 1억 2,600 정도.

○위원장 00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년도 우리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인원과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표결을 부쳐야 될 것 같네요.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명과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로 표현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예. 만장일치로 동의하신 걸로, 확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결서에 심사 의견 적합, 부적합에 표기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000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부적합 시에는 사유 또는 제안 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의결서 배부 및 서명)

○간사 000 의결서는 꼼꼼히 봐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 부적합 판단하시고 밑에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사유 써주시면 됩니다.

○000 위원 출장 인원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000 위원 24명으로 돼 있어요.

○간사 000 의결서 하단에 변경 내용에 보시면 22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000 위원 아, 예. 16명, 직원 6명.

○간사 000 예, 별도 의견 있으시면 의견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경비 지급기준일 환율에 따라 일부 지급 비용이 약간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000 적합, 부적합 다 기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취합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위원 수 7명 중 적합 7명, 부적합 0명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을 처음 하는 관계로 오늘 매끄럽게 진행을 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참석위원(7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출석공무원(5명)

간사 000

주무관 000 000 000 000

[붙임3]

심사위원회 회의록(출장 후)

2025년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일 시 : 2025년 10월 16일 (목) 10:00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심사안건

1. 2025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회)

○간사 000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의정 팀장 000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사로부터 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응답 및 심사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000 안녕하세요? 위원장 000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은 우리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을 갔다 오신 의원 16명과 직원 6명에 대한 결과 보고서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000 제1호 안건 2025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먼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간사인 의정팀장으로부터 본 심사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사 000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쪽 출장 개요입니다.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총 6박 9일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등에 다녀왔으며, 우리 구의회 의원 총 열일곱 명 중 열여섯 명이 참가하여 의회 운영, 교육·문화, 복지·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2쪽에서 6쪽까지는 출장 일정, 출장자 업무분장, 방문 국가 및 방문지 현황으로, 이는 출장 실시 전의 심의자료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서 9쪽은 우리 구의회 차원의 이번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총평 부분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78쪽까지 UN본부, 국회의사당, 워싱턴D.C.의회, 뉴욕공립도서관, 한미경찰자문위원회, 버겐 패밀리 센터 등 주요 공식 방문기관에서의 현장 질의응답, 시사점, 우리 구의회 차원의 실천 계획, 현장 사진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부터 95쪽까지는 기타 현장시찰을 통해 벤치마킹한 내용을 정리한 부분으로 교육 및 문화사업 분야, 정원·공원 분야, 보훈 및 기념사업 분야, 도시재생 분야, 기타 분야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부터 138쪽까지는 본 결과보고서의 핵심내용인 입법·정책 추진계획입니다.

각 분야에서 보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조례안 11건, 결의안 1건 총 12개의 입법·정책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에 우리 구의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139쪽 출장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및 직원여비, 물품구입비, 국내 차량임차료는 출장 전·후 정산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3번과 4번 직원 취소 수수료는 출장 전 계획서 심의에서 의결한 것처럼 2명의 직원을 출장 취소함에 따라 항공권 및 비자 발급비를 합한 55만 8,800원을 예산으로 지출한 부분입니다.

또한, 5번 통역비, 6번 기관섭외비, 8번 가이드비, 9번 입장료는 외화 송금 과정에서 수수료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과 출장직원 2명 감소에 따른 입장료 감액분을 합하여 총 11만 4,212원을 추가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외 차량 임차료는 외화 송금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총 22만 9,108원을 추가 지출하여 당초 계획서상의 1억 1,164만 3,440원 대비 90만 2,120원을 추가 지출하여 총 1억 1,254만 5,560원을 지출하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000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지죠.」하는 이 있음)

예,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의견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심사의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결서 배부 및 기재)

심사기준표에 기재하시고 심사의견 적합, 부적합에 표기하여 주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시에는 사유 또는 제안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000 위원 위원장님, 입법·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000 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보고서 끝났으니까.

○위원장 000 아직 여기 진행할 게 있고요. 그리고 가결, 부결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의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00 주무관님!

(심사의결서 수합)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심사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위원수 6명 중 적합 6명, 부적합 0명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심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또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한 분, 한 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000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9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결의안, 상당히 늦었지만 저는 환영합니다. 특히, 여기 중간에 서울 노원구는 「탄소중립국」을 신설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2년 서울시와 녹색시민위원회 시민실천단 단장들 모임에서 2025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제시를 25개 자치구에다 전부 의뢰를 했었는데, 말씀드린 도봉, 서초, 동작, 노원, 송파 등이 적극 호응을 해 가지고, 특히 노원구는 탄소중립국을 신설했었습니다. 좀 힘들지만 영등포구는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 지금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해외 갔다 오시면서 많은 고민한 흔적이 나와 있는데요. 1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110페이지 제14조(운영)에서 5항에 보면 천재지변 등 긴급 시 또는 안전이 경미한 경우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조금 문제, 제외돼야 된다는 이유가 영등포구 환경과가 사실은 근 20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 최우수 1, 2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4, 5년 사이에 떨어졌는데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 회의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귀찮으면 서면 결의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다른 24개 자치구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다행히 전 회기 의회에서 환경위원회를 연 4회로 늘려주셔서 관내 순찰 돌고 안양천이고 다 현장 나가서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걸 그나마 2회로 줄이고 그다음 번에 경미사항은 심의·의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천재지변 및 긴급 시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개최하여야 한다 이 조항으로 변경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000 000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하는 거고 현행하고 또 개정안에 대한 이런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정팀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000 예. 일단 000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일단 안이고 나중에 저희가 집행부에 조례 개정안을 적극 권장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좀 건의하고 그렇게 개정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000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무국외출장에 관해서 좋은 어드바이스나 좋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000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전체가 같이 갔지만은 이번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장 000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십시오.

○000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내년 계획을 할 때는 좀 소규모로 해서, 요즘에는 옛날 우리 패키지여행처럼 몰려서 막 다니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체험 위주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위원회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내년에는 한번 2~3번 정도로 나눠서 그렇게 추진하면 더 연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해외연수 추세가 모든 게 옛날처럼 막 같이 몰려가서 관광 식으로 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로 해서 체험하는 쪽으로. 꼭 선진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역사라든지 이런 것 배울 점 같은 그런 것도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000 000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간사 000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위원회별로 또는 어떤 소관 업무에 관한 소규모 출장, 내실 있는 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000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000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출장을 알차게 잘 다녀오셨는데요. 출장 갔다 온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좀 적극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00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000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000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예, 잘 다녀오셔서 아무 탈 없이 갔다 오셔서 반갑고요.

여기 저희들 해외를 다녀오면 지금 이슈가 관광 목적이라는 그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간사 000 예.

○000 위원 그 관광 목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UN을 가든지 도서관을 어디를 가든지 돌아다녔기 때문에 관광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총평을 보면 그냥 설명만 하고 다녀왔다는 것만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가령 UN에 갔을 때 저희들하고의 국가 간에 뭐가 있어서 영등포구는 어떠한 문제점을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조금 반영이 돼가지고 총평에다가 기록을 하고, 도서관에 갔는데 이러한 것은 으뜸이 돼서 가령 ES 전자도서관으로 이용을 하게 돼서 우리 영등포도 그런 도서관을 본보기로 하나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그런 예시적인 문제가 총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갔다 온 거에 대한 설명만 있어가지고요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여기다 기입을 하시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의 또 종합적인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여기 총평에다가 좀 기록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000 말씀 감사합니다.

○간사 000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총평 부분은 지금 보완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27일 의회 임시회 때 본회의에 최종 보고를 합니다. 그 전까지 저희가 총평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위원님들께는 서면으로 최종 보고서를 다시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저희가 보완하는 걸로 본회의 때 심사해서 결과보고서 책자를 만들어서 나중에 구민들한테 다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그거는 꼭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사 00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00 위원 왜냐하면 갔다 왔는데 아무 우리가 정책 제안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를 벤치마킹을 하지 않고 온다면 오로지 관광에 의존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니까 저희들이 다녔던 곳 6군데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접해가지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는 영등포는 이런 면이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거를 여기에다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000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000 고맙습니다.

000 위원님.

○000 위원 저는 다들 좋은 말씀 하셔서 특별한 거 없는데 보면 저희들이 국외연수 저희 영등포도 떠나고 바로 그다음 날 언론에 나왔잖아요, JTBC에서.

그런데 참 그게 우리 영등포만 나온 게 아니고 전에 보니까 경상도는 공항에서까지도 쫓아와서 막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영등포는 그래도 불미스러운 큰 사건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갑자기 JTBC 뉴스에 나오니까 제가 여기 와서 심의를 한 입장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은 됐어요. 가서서 마음은 안 편하겠다 저 입장은 그랬는데 무사히 그래도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꼭 구의원들이 다 17명 이렇게 16명 가야 되고 또 그에 따른 공무원들이 꼭 그렇게 많이 가서서 이런 예산을 꼭 써야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저희들 영등포구는 언론에 안 나오고 잘 돌아갔으면 좋을 듯합니다.

○간사 000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000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지역 주민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께서 ‘지방의원들 해외연수, 지역발전 위한 선진학습’이다 이렇게 해서 기고를 쓴 게 있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적어와서 제가 집에서 한번 읽어보니까 한 4분 정도 걸리는데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는 매년 반복되는 논란거리다. “관광성 연수다”, “세금 낭비다”라는 비판은 이미 익숙하다.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지적이다. 그

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외연수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과연 옳을까? 지방의원에게 세계의 흐름을 직접 보고 배우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결국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길이 될 수 있다.

지방의회가 다루는 의제는 이제 단순히 도로나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 청년 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고령사회 대책 등은 이미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과제다. 해외의 도시들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어떤 정책은 성공했고, 어떤 시도는 실패했을까? 이를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의 시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 책상 앞 보고서와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현장의 온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국외연수는 지방의원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학습’이자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운영 방식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방문 일정으로 채워지거나, 형식적인 기관 방문, 관광지 일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주민들이 “관광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제도 자체의 본질적 결함이라기보다 운영 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공식 방문지를 섭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언어와 네트워크의 한계 때문에 교류보다는 단순 인사 수준의 일정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제는 ‘공식방문’이라는 형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연수가 더 실속 있다. 기후위기를 다루는 의원이라면 재생에너지 도시를,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의원이라면 창업 생태계가 활발한 도시를 찾아가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다. 위원회 단위의 대규모 연수보다는 소규모 그룹이나 개인 단위로, 때로는 배낭여행처럼 자유로운 일정 속에서 현장을 체험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 바로 국외여비의 현실화다. 현재 책정된 여비는 실제 물가와 항공료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이 최소 비용으로 억지 일정을 꾸리거나, 보여주기식 방문으로 시간을 채우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여비를 조정해 의원들이 제대로 된 학습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연수는 이제 ‘여행’이 아니라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 국민의 시선에서 볼 때, 의례적 방문은 줄이고 실속 있는 맞춤형 연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 자율형 연수, 관심 분야 중심의 탐방 그리고 국외여비 현실화가 병행된다면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충분히 의미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곧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 세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의원들에게 보장하는 것은 결국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다.

이런 기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 갖고 왔는데 위원님들은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 현실화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좋은 내용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등포구의회 실무 팀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공무국외출장TF팀을 다른 일도 하시지만 공무국외출장TF팀에 한 두세 분을 구성하셔서 1년 농사지을 때 한 번 가는 것 사전에 한 두세 달 고민을 하셔서 잘 현지하고 갈 수 있다면 출장도 가시고 또 가서가지고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현지 기관을 통하기보다는 직접 언어가 되신다면 가보신다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해서 저는 TF팀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참석위원(6명)

000 000 000 000 000 000

○결석위원(1명)

송광희

○출석공무원

의정팀장 000

지방행정주사 000

[붙임4]

수신: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제출

1. 개최일시: 2025.10.16.(목) 10:00
2. 안 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
3. 의결내용: 적합 ※ 출석위원 6명

2025년 10월 16일

영등포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장 000

[붙임5]

항공권 영수증

승객성명 Passenger Name

JUNG/SEONHEE MS

항공권번호 Ticket Number

1802761926070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1

서울 ICN

Incheon international Terminal No: 2

04SEP25(목)10:00 (Local Time)

뉴욕 JFK

John f kennedy intl Terminal No: 1

04SEP25(목)11:00 (Local Time)

예약번호 KE0081

예약번호: 1

Operated by KC KOREAN AIR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합니다.

예약등급 Class

Q(일반석)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비행시간 Flight Time

14시간

운임 Fare Basis

QKX0ZBYK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 30SEP25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수하물 Baggage

2PC

기종 Aircraft Type

AIRBUS A380-800

좌석번호 Seat Number

35H

2

뉴욕 JFK

John f kennedy intl Terminal No: 1

11SEP25(목)00:50 (Local Time)

서울 ICN

Incheon international Terminal No: 2

12SEP25(금)05:20 (Local Time)

예약번호 KF0086

예약번호

Operated by KC KOREAN AIR

예약등급 Class

Q(일반석)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비행시간 Flight Time

15시간 30분

운임 Fare Basis

QKX0ZBYK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05SEP25 ~ 04MAR26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수하물 Baggage

2PC

기종 Aircraft Type

BOEING 777-300ER

좌석번호 Seat Number

33C

예약등급은 항공사 FLIGHT 정보에 따라 표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할인 또는 무임 항공권의 경우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이 상이하거나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스케줄, 기종 및 좌석등급(서비스클래스)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예고없이 항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교체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하신 좌석이 변경될 수 있으니 탑승수속 시 기종 및 좌석번호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는 항공사나 공항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하물 정책 - 미국을 여행하시는 승객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AIR

항공권 운임정보 Ticket/Fare Information

연결항공권 Conj.Ticket No.

운임산출내역 Fare Calculation

선출운임 Fare Amount

지불화매 Equiv.Fare Paid

세금/항공사 부과 금액 Taxes/Carrier-imposed Fees

세금 Taxes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

부가수수료 Service Fees

총산출금액 Total Amount

지불수단 Form of Payment

발행일/발행처 e-Ticket Issue Date/Place

-

SEL KE NYC348.18KE SEL348.18NUC696.36END ROE1364.212007 XF JFK4.5

KRW 9500000

-

Paid Amount KRW 241700

KRW 24000BP 7800AY 31900US 5200XA 9800XY 10000YC 6300XF

* 2025년 1월 1일 발권일 및 탑승일 기준 한국 출발 세금(BP)은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인천/김포 17,000원, 기타 12,000원), 중국납부금 7,000원으로 구성되어 12세 미만 소아는 중국납부금이 면제됩니다.

KRW 114800YR

-

KRW 1191700

CCVI XXXXXXXXXX3046 / XXXX/00

18JUL2025 / 17321780 / SELK1323G

* 지불금액은 (Total Paid Amount)에 표기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권번호

연번	성명	항공권 번호	연번	성명	항공권 번호
1	정선희	1802761926070	12	박현우	1802761926136
2	유승용	1802761926071	13	신희식	1802761926137
3	이규선	1802761926072	14	이성수	1802761926140
4	양송이	1802761926073	15	우경란	1802761926138
5	차인영	1802761926074	16	최인순	1802761926139
6	최봉희	1802761926075	17	수행1	1802761926088
7	김지연	1802761926076	18	수행2	1802761926089
8	남완현	1802761926077	19	수행3	1802761926091
9	전승관	1802761926078	20	수행4	1802761926092
10	이순우	1802761926134	21	수행5	1802761926093
11	임현호	1802761926135	22	수행6	1802761926094

- 182 -